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3년 2월
석사학위논문

집의 이미지를 응용한 도자조형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이 미 진

집의 이미지를 응용한 도자조형 연구

A Study on the Formative Ceramics applying Image of House

2013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이 미 진

집의 이미지를 응용한 도자조형 연구

지도교수 박 재 연

이 논문을 미술학 석사학위 신청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이 미 진

이미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 원 장 조선대학교 교수 한 선 주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 순 천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 재 연 (인) 

2012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국문초록	vii
Abstract	viii
제 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2
제 2장 본 론	3
제1절 집의 의미와 상징성	3
1. 인격적 상징	6
2. 공간적 상징	7
3. 시간적 상징	8
제2절 현대도자조형의 전개	9
1. 탈 기능 오브제 도입	10
2. 회화적 표현	12
3. 혼합매체 활용	14
제3절 집의 이미지를 응용한 작품분석	17
1. 작가별 작품분석	18
2. 분야별 작품분석	25
제 3장 작품연구	38
제1절 작품계획	38
제2절 작품제작 과정	40

제3절 작품설명	43
제 4장 결 론	59
참고문헌	61

표 목 차

〈표 1〉 G. Hayward의 9가지 집의 의미	4
〈표 2〉 집의 의미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4
〈표 3〉 작가별 작품분석	24
〈표 4〉 분야별 작품분석(도자)	25
〈표 5〉 분야별 작품분석(조각)	27
〈표 6〉 분야별 작품분석(설치)	29
〈표 7〉 분야별 작품분석(회화)	31
〈표 8〉 분야별 작품분석(사진)	33
〈표 9〉 분야별 작품분석(혼합매체)	35

그림 목 차

〈그림 1〉 Robert Arneson, No Return, 1961	11
〈그림 2〉 Jack Earl, Covered Bridge, 1979	11
〈그림 3〉 David Gilhooly, Two toad sloth, 1978	11
〈그림 4〉 Marilyn Levin, Hanna's Bag, 1985	11
〈그림 5〉 Marilyn Levin, Anne's Jacket, 1990	11
〈그림 6〉 Richard shaw, Small Card Stack with Book and Bowl, 1996	11
〈그림 7〉 Richard shaw, Paper Lighthouse, 1985	11
〈그림 8〉 Pablo Picasso, Vase with two high handles, 1953	13
〈그림 9〉 Peter Voulkos, 접시, 1978	13
〈그림 10〉 Rudy Autio, Luna Lake, 1987	13
〈그림 11〉 Akio Takamori, Running Away, 1987	13
〈그림 12〉 Georges Braque, 과일접시와 유리잔이 있는 정물, 1912	15
〈그림 13〉 Pablo Picasso, 등나무가 있는 정물, 1912	15
〈그림 14〉 Pablo Picasso, 압생트 잔, 1912	15
〈그림 15〉 모준석, 동행, 2010	18
〈그림 16〉 모준석, 5월의 신부, 2011	18
〈그림 17〉 모준석, 우리는 공사중, 2011	19
〈그림 18〉 모준석, 에클레시아(ecclesia), 2010	19
〈그림 19〉 서도호, 별뿔별 - 1/5 (Fallen Star 1/5th Scale), 2011, 앞	20
〈그림 20〉 서도호, 별뿔별 - 1/5 (Fallen Star 1/5th Scale), 2011, 뒤	20
〈그림 21〉 서도호, 투영(Reflection), 2005-2011	21
〈그림 22〉 이경주, 그 남자의 집, 2009	22
〈그림 23〉 이경주, 집을 찾아서 꿈꾸는집 I, II, 2008	22
〈그림 24〉 이경주, Welcome To My World, 2012	23

〈그림 25〉 이경주, Welcome To My World, 2012	23
〈그림 26〉 이경주, Welcome To My World, 2012	23
〈그림 27〉 작품계획도	39
〈그림 28〉 작품기초성형과정	40
〈그림 29〉 판 성형 상감기법 과정	41
〈그림 30〉 세라믹 펜 및 흙상감 집의 이미지 표현과정	41
〈그림 31〉 소성 후 장식과정	42
〈그림 32〉 훈데르트바서, 세 번째 피부, 1982	46

작 품 목 차

〈작품 1〉 Home Story 1	43
〈작품 2〉 Home Story 2	45
〈작품 3〉 Home Story 3	47
〈작품 4〉 Home Story 4	49
〈작품 5〉 Home Story 5	51
〈작품 6〉 Home Story 6	53
〈작품 7〉 Home Story 7	55
〈작품 8〉 Home Story 8	57

국문초록

집이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와 미래 또는 과거의 삶이 한데 맞물려서 흘러가는 생활터전인 동시에 기억을 저장하며 추억과 꿈을 안고 빈 공간을 채워가는 가장 이상적인 공간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현대인들의 가치관 변화에 따라 집은 단순히 보호나 휴식을 위한 거처가 아닌 부동산 투자의 대상인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집에 대한 의미가 질적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따라 본래의 집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잘 표현해주는 집의 이미지를 작품의 소재로 활용하였다. 집 안에 스며들어 있는 자신의 모습과 지나온 시간 속의 집, 상상 속의 집, 현대인들의 삶 등의 의미로 집을 표현하였으며 작품 속에 담긴 집의 의미를 이해하고 교감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집의 사전적 정의 및 G, Hayward 가 정리한 9가지 집의 의미와 학술논문인 집의 의미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을 통한 집의 의미를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이를 통해 집의 상징성을 인격적, 공간적, 시간적 상징으로 이끌어내었다. 또한 현대도자조형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알아보고 이를 배경으로 현대도예에 나타난 탈 기능 오브제 도입, 회화적 표현, 혼합매체 활용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현대예술품에 나타난 집의 이미지를 응용한 작가별, 분야별 작품분석을 통해 작품 속에 나타나는 집의 상징적 의미와 작가들에 의해 다양한 장르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집의 이미지를 살펴보고 작품제작에 들어가 본 연구자의 내적 영감에 따라 집의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집의 이미지를 도자조형으로 표현하였다.

본 연구자는 집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자 일상 속 오브제 형태를 차용하여 집의 이미지를 일러스트 그림처럼 표현하여 흥미로운 도자조형언어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잊고 있었던 집의 의미를 상기시키며 집에 내포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품연구를 통해 본 연구자는 집의 이미지는 작품의 소재로 무한한 조형 표현의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통해 연구자만의 새로운 표현방식을 구축하여 도자조형언어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길 기대해 본다.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ve Ceramics applying Image of House

Mi-jin Lee

Advisor : Prof. Jae-yeon Park

Department of Industrial Craft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Houses are sites of our life where we live and life of the present is combined with that of the future and past, and the most ideal space where we store our memories in empty space.

However, with rapid development of modern society and changed senses of values of modern people, houses are qualitatively reduced to products as subjects of investment rather than space of protection or resting.

This study speculated the inherent meaning of houses and used images of houses which represent our life as materials of my artistic work.

In my artistic works, houses were represented into space of the past, imagination and life of modern people and this study aims to truly understand meaning of houses in the artistic works and sympathize with it.

This study used dictionary definition of houses, nine meanings of houses presented by Hayward and its academic meaning through a psychological approach as theoretical background and induced personal, spatial and chronological symbols from the houses.

Also, it identified how modern ceramic sculpture has been developed and introduction of post-modern objet, picturesque expression and use of mixed

media in modern ceramic art.

In addition, through specifically analysing modern artistic works using images of houses, symbolic images of houses presented by different artists and in various genres were analysed and images of houses with symbols revealed through internal inspiration were represented into ceramic sculpture.

This study illustrated true images of houses using interesting ceramic art language, which was intended to remind meaning of houses we have forgotten using everyday objet.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re is infinite possibility that images of houses can be used as materials of artistic works, and it is expected that the area of ceramic art language will be extended through development of new ways of expression.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배경과 목적

집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서 인간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족이라는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살아가는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인식되어진다. 하지만 현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가족 구성원의 변화, 생활의 변화로 인해 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의미도 점차 변화해 가고 있다. 현대사회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시대와 문화가 변화함에 따라 집은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18세기 건축가 가브리엘 체르망 보프랑은 개개인의 품위가 집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과 집주인의 사회적 지위와 포부가 집을 통해 드러난다고 단언했다.¹⁾ 다시 말해 집이란 거짓말을 하기 가장 어려운 공간으로 집에 사는 사람의 인격과 기분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곳이다. 이렇듯 집이란 인간이 삶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간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는 공간이다. 이러한 집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과거의 기억, 추억이라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된 자신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집이란 곧 개인의 공간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잘 나타내내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집을 물리적인 기능을 벗어나 개인을 상징하는 매개체로 보았다. 개인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다양한 감정을 담고 있는 집을 사람과 일체화함으로서 조형적 언어로 표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집은 인간, 공간, 시간을 상징하며 연구자 내면의 마음이다. 집은 내부의 상상과 기억공간으로 인식되며 삶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매개체이다. 집이라는 공간을 통하여 내면세계에 대해 생각해 보고 특히 내면에 떠오르는 심상표현을 함으로써 인간의 감정과 꿈을 어떠한 형식이나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서 집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1) 쉬레이 저, 정세경 역, 『집, 예술이 머물다』, 시그마북스, 2011, p. 3

제 2절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집의 의미를 고찰하여 집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집이 나타내는 상징성과 이미지를 응용하여 도자조형 작품으로 제작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국내 외 참고문헌을 통하여 집의 사전적인 개념과 함께 기본적인 집의 의미를 살펴보고, G.hayward가 정리한 아홉 가지 집의 의미와 집의 의미를 심리학적으로 접근한 연구 결과 중심으로 집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집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집이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인격적, 공간적, 시간적 상징으로 유추하였다.

둘째, 국내 학위논문 중심으로 현대도자조형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알아봄으로서 이를 배경으로 현대도예에 나타난 탈 기능 오브제 도입, 회화적 표현, 혼합매체 활용을 살펴보았다.

셋째, 인터넷 전시사이트 중심으로 집의 이미지를 응용한 다양한 작품 사례를 모아 정리하여 작가별 작품분석과 회화, 조각, 도자, 설치 등 분야별 작품분석을 통해 현대예술에서 다양하게 표현되어진 집의 이미지를 살펴보고 작가들의 작품에서 표현된 집의 조형미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집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넷째, 앞서 이루어진 이론적 배경과 작가들이 표현한 다양한 집의 이미지와 의미, 상징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의 주관적인 내적심상에 따라 집의 이미지를 응용한 도자조형 작품을 제작한다.

작품제작방법으로는 조형 형태를 가장 잘 표현 할 수 있는 코일링 기법과 판 성형을 병행하여 작품에 나타나는 전체적인 집의 이미지를 최대한 단순화 시켜 집의 이미지와 도시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오브제 형태를 차용하여 표면에 집의 이미지를 표현함으로써 현 시대의 집에 내포된 의미를 표현하고자 한다.

제 2장 본 론

제 1절 집의 의미와 상징성

집은 인간의 생존 필수요건인 의, 식, 주 중 주에 해당하며 삶의 기본 요소 중 하나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공간이다. 집은 사람이나 동물이 거주하기 위해 지은 건물로, 보통 벽과 지붕을 가지고 있으며, 추위와 비바람을 막아주는 물리적인 구조물로 정의되어왔다.²⁾ 하지만 이러한 정의와는 달리 우리말과 영어에서 살펴본 집의 의미는 물리적인 구조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말에서 ‘집’이 지니는 의미는 주거공간인 가옥 혹은 주택이며, 여기에 가옥 내에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는 사회집단인 가족의 의미가 결합되고, 가족과 가옥을 기초로 하여 형성되는 정서적 의미와 공간인 가정이 추가되어 형성되는 단어이다.³⁾ 영어에서의 집의 의미는 주택(house), 주거(housing), 가정(home)으로 나뉘며, 주택은 독립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저택을 뜻한다. 주거는 주택과 가정의 측면을 혼합한 개념으로 친밀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방식으로 공유하는 공간이며, 가정은 주택에서 특정인과의 추억이나 사건 등의 친밀한 경험들을 포함하는 개인적인 감정이 내재된 뜻을 의미한다.⁴⁾

정의에 의하면 집은 인간이 거주하는 물리적인 건축물이지만 개인과 가족의 생활을 영위하는 정신적인 공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환경이기도 하며, 나아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정의의 근거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집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살펴본 것과 같이 집이라는 개념에는 주택, 주거, 가정을 포함하며 집이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집의 의미에 대하여 G. Hayward가 정리한 9가지 집의 개념과 학술논문인 집의 의미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서 인간이 집에서 느낄 수 있는 집의 심리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G. Hayward는 집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9가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위키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wiki/%EC%A7%91>

3) 김창수, 「한국 근대시에 나타난 집 이미지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1, p. 22

4) 장인숙, 「집의 심리적 의미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2, p. 3

〈표 1〉 G. Hayward의 9가지 집의 의미 5)

개념	의미
친밀감	가장 원초적인 것으로 소속감, 사랑, 정서적 경험, 안전, 상호존중 등을 포함. 가족, 친구, 감정, 사람 안정 등을 강조함
사회적 관계	넓은 사회적 맥락으로 친구, 이웃, 지역사회 등을 포함
자아정체감	집을 자기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생각과 가치가 반영됨으로서 안락감과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력을 줌
사생활과 피난의 장소	바깥세상을 떠나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평화, 휴식의 장소이고 안전하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장소
계속성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장소. 환경과 시간을 두고 관계를 지속함으로서 영원성, 안정성, 친근한 환경 등을 나타냄
개인화된 장소	주거소유권, 시간과 금전의 투자, 생각과 취미를 반영하며 개인에 맞게 변화시키고 장식하는 아이디어를 포함한 개념
활동의 근거	작업, 여가활동,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곳, 먹고, 자고, 오락을 즐기는 장소
유년의 가정	인류의 유산 혹은 뿌리를 일컬으며 사람이 성장하고 부모가 살고 있는 원초적인 곳
물리적 구조물	주거환경의 방, 건물, 아파트, 주변 환경, 건축적 디자인 등으로서 토지공간의 크기, 주거환경을 의미함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나 홀로 세대의 증가 등 주거유형의 변화에 따른 주거문제를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집이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심리학적으로 접근한 학술논문에서는 집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9개로 구분하였다.

〈표 2〉 집의 의미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6)

존재의 기반, 자신과 타인을 구분해주는 공간
가족구성원들과의 정을 나누고 교류하는 공간
휴식처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
또 다른 일터
자신을 표현하는 장소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표시하는 도구
스스로에 대한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도구
재산적 가치

5) 장인숙, 앞의 논문, p. 11

6) 박은아, 이연경, 「집의 의미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학술논문, 2011, 초록

이를 종합해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으로서 거주지의 의미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타인으로부터 구별하는 영역으로서의 의미, 재산적 가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집을 통해 심리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등 여러 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헤이워드가 정리한 9가지 집의 개념과 집의 의미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이라는 학술논문을 통해서 인간이 집에서 느낄 수 있는 심리적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었다. 즉, 집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 식, 주에 속하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며 개인과 가족 또는 큰 집단이 서로 공존하는 물리적인 기능을 하는 건물로서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정서까지도 느끼게 해주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집은 현대사회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사회구조의 변화가 나타났다. 직장 또는 학업 등의 이유로 가족과 자연스럽게 떨어져 살게 됨으로서 과거 공동체 생활 중심이었던 가족구성원의 해체, 세대 간의 갈등 등 집이라는 공간이 지닌 의미는 이렇게 삶이 변화 할수록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현재의 집은 과거 가족중심의 공동체 생활 중심이기보다 개인의 사적인 공간으로서 인간의 실존을 가장 본질적으로 표현해주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집의 본래의 의미는 축소되고 있다. 더불어 현대사회에서 집은 점차 기능과 편의성만 추구하면서 집의 상품화로 인해 부동산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집의 의미가 질적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렇듯 집의 의미는 변화해 가고 있으며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도 다양하다.

본 연구자에게 집은 인간존재의 바탕이 되는 공간으로서 집은 곧 사람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곧 우리 자신임을 의미하며 집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우리가 생활하고 경험하는 집은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나 문화에 따라 다르며, 사적인 공간으로서 자신을 잘 드러내주는 공간이다. 사람의 성향, 품성, 정서는 그 사람이 사는 집을 통해 드러난다. 즉, 집이야말로 그 어떠한 건축물보다도 집 안의 일상생활을 통해 거주자의 감성이 담겨지고 표현되어 집으로서 그 안에 내포된 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자에게 집은 자아 정체성 확립, 유년시절 기억 속의 집에 대한 추억, 미래에 대한 꿈을 상징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집을 상징하는 자아의 정체성을 사람으로 지칭하여 인격적 상징, 유년시절 기억 속의 집을 공간적 상징, 과거와 미래 시간적 상징 세 가지로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1. 인격적 상징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집은 필수 불가결 요소이며 인간에게 있어 집을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과 정체성을 잃는 것과 같다. 인간은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집을 갖고자 한다. 이러한 근원적인 욕망을 가진 인간은 집속의 존재로 보아도 무방하다. 집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주는 매개체는 없다. 인간은 집을 통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존재를 파악하게 되고, 더 나아가 개체성과 자아정체감을 갖는데 많은 영향을 받는다.

심리학자들은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보게 하면 집의 창을 눈처럼, 현관문을 입처럼 그려 인간의 얼굴과 유사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집은 인간의 신체와 같이 내부와 외부가 소통할 수 있는 현관문과 창문으로, 자신만의 사적인 공간으로서 자신의 모든 내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방으로 나타난다.

또한 집은 곧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상징한다. 집은 우리의 신체와 같이 전면과 후면, 바깥세상을 내다보는 창문, 그리고 음식을 들여오고 나가는 곳, 쓰레기를 배출하는 통로 등을 가지고 있다.⁷⁾ 집의 공간적 구조를 보면 내부와 외부로 분리되어 있는데 집을 인간의 행위와 감정 및 이성의 모든 정신을 담는 형태로 외부가 내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렇듯 집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매개체이다.

정체성이란 장소가 거주자로부터 장소 자체의 정체성을 얻고, 거주자가 장소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얻는, 사람과 장소의 결속 또는 몰입을 의미한다. 거주자와 거주지 사이에는 통합과 연계성이 있다. 질서로서의 주거와 정체성으로서의 주거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질서는 우리가 주거에서 ‘어디’에 와 있는지와 관계가 있는 반면, 정체성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정체성으로서의 주거는 세계관에 대한 자기 이미지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집터 그 자체에 의해 제공되는 구성요소를 수반한다. 우리는 주거라고 부르는 장소에 정체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그 장소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끌어내는 것이다.⁸⁾

7) 데이비트 폰테너, 원재길 역, 『꿈의 비밀』, 열화당, 1998, p. 128

8) 홍영옥 외 지음, 『생활 속의 공간예술』, 교문사, 2005, pp. 11-12

2. 공간적 상징

하이데거 (Heidegger)는 인간은 세계 내에 던져져 있는 ‘피투성의 존재’라 하였다. 이는 인간이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만 그 의미와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인간이 관계하는 장소와 공간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더욱이 인간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 까지 관계하고 있는 장소와 공간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세계 내에서 인간과 함께 가장 오랫동안 호흡하는 공간이 바로 집이다.⁹⁾

집은 인간이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까지 편안한 삶의 공간으로 느끼며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자신만의 기억과 감정을 담으며 집을 통해 삶의 흔적을 남긴다. 기억 속에 남아 있는 특정 장소는 공간의 상징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공간의 상징성은 앞서 집의 의미에서 살펴본 헤이워드가 정리한 현상학에서의 9가지의 집의 개념 가운데 계속성”에 잘 나타나 있다. “집이란 환경과 시간을 두고 관계를 지속할 수 있고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장소이며 영원성, 안전성, 친근한 환경 등을 나타낸다.”라고 하였다. 즉, 누구에게나 돌아가고 싶은 기억 속의 특정한 장소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억 속의 공간은 인간과 연계되어 있다. 집은 인간과 세계 사이의 연계 속에서 바라 볼 때, 특정 장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질서, 통합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는 관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정장소 내에서의 적응과 일정 장소 내에 뿌리를 내리고 각각의 고유한 장소로부터 토착적인 정체성을 얻는 방법을 통하여 형성된다. 거주 장소에 대한 기억은 연속성과 친밀성의 경험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집은 인간과 장소를 연결시키고, 주거경험과 그것이 발생한 더 넓은 공간적, 시간적, 사회문화적인 내용들과의 총체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통합된 구조이다. 주거는 우리를 적응시키고, 과거와 미래, 물리적, 사회적인 환경과 우리를 연결시킨다. “진정한 의미의 집은 기억 속에만 거주하고 있다. 성장한 뒤 우리는 세 종류의 집 속에서 동시에 거주하게 된다. 유년시절을 보내던 기억의 집과 현재 살고 있는 집, 그리고 만일 우리가 아직도 용기 있고 사는 것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살아 보고 싶은 꿈속의 집이다.”¹⁰⁾

9) 정유화, 「집에 대한 공간체험과 기호론적 의미: 백석론」, 학술논문, 2001, p. 258

10) 김인철, 『건축가는 어떤 집에서 살까』, 서울포럼, 2005, p.73

3. 시간적 상징

과거와 현재 시간의 질서에 따라 우리가 거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집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라보게 해주는 매개체이다. 주거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장소이다. 이러한 과거와 현재의 시간적인 질서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의해 자신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며 정체성을 확립하는 수단이 된다.

시간을 넘어 기억 속에 잠재되어 있는 물리적인 환경과 집은 자신의 고유한 경험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들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특정한 의미가 깃들게 된다. 투안(Tuan)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물건과 장소 속에서 그 표현과 안주지를 발견하며 그들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정도만큼 물건과 장소가 창조된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¹¹⁾

본 연구자에게 있어 유년시절 추억 속 할머니의 집은 가족이라는 관계성에 의해서 형성되며 개인의 역사와 함께 소중한 추억들이 쌓여 이루어진 꿈의 집합체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거 속 유년시절의 집은 현재와 과거, 경험과 기억사이의 상호작용을 하며 시간적 상징을 나타낸다.

시간적인 정체성으로서의 주거는 과거와의 연계성을 나타낼 뿐 아니라 미래와의 연결로 확대된다. 자율적인 장소로서 주거의 이러한 측면은 정체성으로서의 주거와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미래로 연결되어 있다. 주거는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게 하고 정체성이 성장할 수 있게 한다. 정체성의 성장은 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반영하는 형태를 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정체성의 성장은 현재와 미래, 우리의 경험과 꿈 사이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자유를 요구한다. 우리가 어떠한 장소를 그대로 두거나 또는 그것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꿈을 구축하고 이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¹²⁾

11) 홍영옥 외 지음, 앞의 단행본, p.12

12) 홍영옥 외 지음, 앞의 단행본, p.12-13

제 2절 현대도자조형의 전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까지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기계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사회 전 분야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순수미술과 디자인, 도자예술을 비롯한 공예, 응용미술의 분야에서도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며 급변하는 사회와 시대변화 양상을 반영하여 조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¹³⁾ 이러한 편리한 기계생산에 의한 문명의 발달로 인해 도자는 기존의 수공적인 영역을 벗어나 정신적인(Fine)의 영역으로 옮겨졌다. 또한 산업혁명은 도자를 비롯한 공예영역에 예술지향의 새로운 조형성과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계기를 부여하게 되었다.

현대도예는 1950년대를 전후하여 서독과 이태리를 포함한 유럽지역과 추상표현주의 도자의 대표작가 피터 볼커스 (Peter Voulkos)를 비롯한 미국 서해안 일대의 도예가들, 그리고 야기 가즈오를 중심으로 하는 교토의 도예가 집단인 소데이사에 의해 시도되었다. 이들은 전통적인 재료의 개념을 거부하고 현대적인 표현양식을 확립시킴으로서 독창적이고 새로운 경향의 도예를 추구하였다.¹⁴⁾

그리하여 현대도예는 1950년대에서 1960~70년대에 걸쳐 ‘도자혁명’ 혹은 ‘점토혁명(Clay Revolution)’ 이라는 신조어를 파생시키며 새로운 조형예술로서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갔다. 그 당시 도예계는 네오다다(Neo Dada)와 팝아트(Pop Art)를 거치면서 다양해진 오브제(Object)를 적극 수용하면서 도자 예술의 변화를 꾀하던 시점이었다.

이러한 도자 운동의 중심에는 피터 볼커스와 로버트 아네슨(Robert Ameson)이 있었다. 피터 볼커스는 1950년대 후반에 ‘추상표현주의도자’를 시도하며 점토는 고대로부터 도자기를 생산하였던 재료로서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제기를 하였으며 볼커스가 파악해낸 점토 자체의 원초적 생명력은 탐구와 창조의 미적대상이 되었다. 1954년에 볼커스에 의해 설립된 로스엔젤레스의 미술학교에는 특정한 스타일이나 사상이 없었기 때문에 작가들은 다양한 기법과 재료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었다.¹⁵⁾ 전통과 예술적 장인정신에 치우쳐 있던 공예영역으로서의 도자기는 볼커스 그룹에 의한 작업형태에 의하여 회화에서의 오브제 개념 발현과 조형적 양식이 전개되었다.

13) 남미경, 「도자오브제의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2001, p. 25

14) 김진아, 「한국 현대도예 전시의 특성과 유형분석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04, p. 3

15) 신상호, 『현대도예-미래를 향한 움직임』, 홍익대학교 도예연구소, 1993, p. 3

1950년대 이후 현대도자오브제의 개념적 성립과 확산으로 순수한 조각적 표현이 활성화 된 것 외에는 조형과 기능이 병치된 용기, 주된 재료를 점토로 하는 복합매체 (Mixed-Media)적 표현, 조형적 요소가 강조되어 기능이 내밀하게 감추어진 여러 유형의 도자형태가 제작되기에 이른다.¹⁶⁾

1960년대에는 의사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구상도자성격으로서의 펑크(Funk)도자로, 1970년대에는 극사실주의와 포토리얼리즘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는 슈퍼 오브제(Super Object) 도자로 재창조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행위와 개념, 설치 예술과의 연관을 보이며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미학과 함께 다원적이고 절충적인 관점으로 오브제의 개념을 확고하게 형성하고 있다.¹⁷⁾ 이후에도 90년대부터 도자예술에서 새로운 의미의 조각적인 용기들이 나타나면서 분류가 힘들 정도로 다양한 양식과 개념을 바탕으로 한 제작방법들이 다양하게 전개되어지고 있다.

1. 탈기능 오브제 도입

1960년대 미술은 곧 오브제라는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다양한 오브제적 표현이 확산되었다. 도자오브제는 사소하고 단순한 일상용품에서부터 실존의 인물, 관념의 형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 재료, 성질 및 색채를 적용한 실험적 작품들을 점토라는 매체를 통하여 독특한 조형양식으로 창조해냈다. 또한 도자 오브제는 순수 예술을 지향하는 현대공예의 반정통적 관점을 확대시켜 나가는데 일정부분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현대도자오브제 영역에서는 전통적 공예의 제작방식과 미학의 관점에서 중요시 되어졌던 실용적 기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해 예술분야의 탈장르화 현상과 함께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미술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오브제는 예술언어로의 표현방식을 급속히 확대시켜 나가게 되었다.

이후 시각적 은유와 익살, 유머와 풍자적 비유를 적용한 도자조형작품이 등장하였다. 이는 펑크도자라 부르며 예술과 삶의 경계 허물기를 시도하며 사회 참여적 메시지 전달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통도자공예의 고유한 용기로서의 실용성이





16) 남미경, 앞의 논문, p. 25

17) 변주성, 「현대미술에서 현대도자의 이해와 교육적 가치 제고」, 학술논문, 2006, pp. 62-64

의미하는 물리적 기능을 사회적인 문제 인식과 전달체적 오브제 역할이 지향하는 정신적 의미로 확장해 내었다.

		
<p><그림1> Robert Arneson No Return, 1961 ¹⁸⁾</p>	<p><그림2> Jack Earl Covered Bridge, 1979 ¹⁹⁾</p>	<p><그림3> David Gilhooly Two toad sloth, 1978 ²⁰⁾</p>

핑크 오브제는 로버트 아네슨 <그림1>, 잭얼(Jack Earl) <그림2>, 데이비드 길홀리(David Gilhooly) <그림3> 등에 의해 활성화 되었다. 핑크 도예에 나타난 오브제는 일상의 컵, 빈병, 캔, 기계류의 물건들, 음식물, 가정의 이미지, 세면대 등 아주 일상의 것들이었다.

			
<p><그림4> Marilyn Levin, Hanna's Bag, 1985 ²¹⁾ <그림5> Marilyn Levin, Anne's Jacket, 1990 ²²⁾</p>		<p><그림6> Richard shaw, Small Card Stack with Book and Bowl, 1996 ²³⁾</p>	<p><그림7> Richard shaw, Paper Lighthouse, 1985 ²⁴⁾</p>

1970년대 이후 마릴린 레빈(Marilyn Levin)<그림4,5>, 리차드 쇼우(Richard shaw)<그림6,7> 등으로 대표되는 슈퍼오브제 작가들 또한 일상의 오브제를 사용

18) <http://www.craftcouncil.org/timeline/60sinfo.html>

19) <http://www.liveauctioneers.com/item/7286425>

20) <http://artsearch.nga.gov.au/Detail.cfm?IRN=116228>

21) <http://www.marilynlevine.com/artworkframeset.html>

22) <http://www.marilynlevine.com/artworkframeset.html>

23) <http://cebiko2009.tistory.com/12>

24) <http://asuartmuseum.asu.edu/collections/ceramics/images.php>

하였는데 석고 틀을 이용하여 판지, 나무, 금속, 종이에 이르기 까지 표현이 가능한 물체는 실제처럼 표현해내었다. 작품은 전사기법이나, 저화도 유약, 도자기 물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실물보다 더욱 섬세하게 표현된 사물을 흙으로 재현해냈다.²⁵⁾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도예를 현지에서 체험한 소수 작가들의 도자 오브제 활동에 의해 1970년대 말경부터 현대도자조형이 시작되었다.

오늘날 현대도자조형의 오브제는 작가의 주관적 시각으로 선택되어 ‘의미부여’된 작품의 소재로 쓰이고 있다. 현대도예에서 실용성을 배제한 탈기능 오브제를 도입함으로써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형작품을 뜻하고 다양한 표현가능성을 확장하여 도자예술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2. 회화적 표현

도예를 포함한 모든 미술 장르에서 다양하게 적용되는 ‘회화적’(Painterly)이란 단어는 문자 그대로 ‘회화’에 대한 형용사적 표현이다. 독일의 미술사가 하인리히 뵐플린(Heinrich Wölfflin)이 사용한 술어로 사물의 윤곽을 부각시키기보다, 색채나 명암, 재질감 (Matière) 등을 돋보이게 만들어 전체적으로 표현적 특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체로 이성이나 지성보다는 감정, 서정성 등이 부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²⁶⁾

1950년대 피터 불커스를 중심으로 추상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은 도예 작가들은 도예의 장식적 특질에 불만을 가지고 점토라는 재료를 예술언어로서 좀 더 표현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현대도예에 크게 영향을 미친 추상표현주의 회화의 거장 잭슨 폴록(Jackson Pollock)의 액션페인팅 그림에서 보여 지는 에너지의 분출, 무의식적인 행위의 예술, 행위의 궤적으로 표출된 우연의 효과와 생동감은 점토를 통해 3 차원적인 조각의 행태로 표출되었다. ‘추상표현주의 도자’는 이와 같은 요인들을 미국적인 여건 속에 종합적으로 수용하면서 탄생하게 된다.²⁷⁾

이 같은 과정 속에서 점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고 새로운 도자언어로

25) 현미란, 「오브제를 접목한 도자조형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2010, p. 19


26) 송호성, 「회화적 표현을 통한 도자조형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2000, p. 5 재인용

27) 모인순, 『점토혁명』, 보문당, 1995, p. 25

수립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대도예의 제작방법들을 탐구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점토 표면의 회화성은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며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점토에 내재된 온갖 가능성들을 탐구하여 점토의 잠재력과 원초적인 특성들을 표출시켰던 것이다.

피카소(Pablo Picasso)의 도예 작업은 1947년에 시작되어 이후 25년간 지속 되었다. 투우, 황소, 새, 인물, 정물, 여인 등의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림 8>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의 인체를 만들어 낸 작품이다. 꽃병의 형태와 얼굴 모양을 그린 붓의 선은 통일되고도 성숙한 완성도를 갖추고 있다.

이처럼 피카소의 작품은 도자기의 유용성을 임의로 파괴하면서까지 물질의 고유한 속성을 변화 시키고 있는데, 그의 예술이 다양하고 풍부한 변화의 연속이었듯이, 도예에 대한 접근 역시 새로운 조형으로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p><그림8> Pablo Picasso Vase with two high handles, 1953 ²⁸⁾</p>	<p><그림9>Peter Voulkos 접시, 1978 ²⁹⁾</p>	<p><그림10> Rudy Autio Luna Lake, 1987 ³⁰⁾</p>	<p><그림11> Akio Takamori Running Away, 1987 ³¹⁾</p>

흙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도자기의 유용성을 파괴했던 피카소의 경우처럼 이후 점토의 표면은 그 자체가 ‘캔버스’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즉 도자기의 형태가 ‘캔버스’로 사용되었으며, 점토는 재질감, 색채, 실질적 형태를 지닌 3차원적 물감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색채는 형태에 뛰어들어 형태를 한정시키거나 창조하거나 파괴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시 말해서 회화적인 표현은 도자기 위에 그림을 그려 넣는 단순한 의미에서 벗어나, 창조성을 띤 조형적인 표현 영역으로 그 범

28) <http://www.masterworksfineart.com/inventory/3546>

29) <http://www.liveauctioneers.com/item/7186280>

30) <http://www.tfaoi.com/aa/7aa/7aa105.htm>

31) <http://asuartmuseum.asu.edu/collections/ceramics/images.php>

위를 확대시켜 나가게 된 것이다.³²⁾

피터 볼커스는 미로(Joan Miro)와 피카소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3 차원적 형태 위에 강렬한 색채를 사용하여 형태를 파기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점토의 속성을 드러낸 새로운 회화성을 추구하였고, 이러한 표면들은 내재된 에너지로 충만한 점토 조각의 한 부분이 되었다. 그는 저온 유약을 사용하였고, 필요에 따라 에폭시 페인트로 채색하였다. 또한 <그림9>의 접시처럼 점토표면에 흙을 파고 선을 그어 회화에서의 드로잉(Drawing)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볼커스는 자유분방한 사고와 충만한 에너지로 점토에 대한 가능성에 도전하였고, 조각과 회화가 결합된 새로운 예술 형태를 창조하기에 이른다. ³³⁾

피터 볼커스 외에도 루디 오티오(Rudy Autio) <그림 10>, 아키오 다카모리(Akio Takamori)<그림11>, 주디 르넬리스(Judy Moonelis), 마이클루세로(Michal Lucero), 잭 얼(Jack Earl)등 많은 작가들에 의해 도예의 회화성은 지속적으로 탐구 되었고, 도예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다양한 호응 아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점토에 있어서의 회화적 표현은 ‘추상표현주의 도자’의 태동과 함께 조형언어로서 인정받은 이래로, 핑크와 극사실주의, 신사실주의, 수퍼 오브제 등과 같이 다양하게 전개되는 현대 도자 속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³⁴⁾

3. 혼합매체 활용

현대예술의 양상은 최근 복합적인 표현형식의 증가로 탈장르화 되면서 혼합재료의 이용과 개념도입, 미술과 환경의 조화, 과학기술과의 결합, 관람자의 참여 등을 통해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혼합재료(Mixed Media)란 글자 그대로 여러 종류의 매체를 서로 혼합시킨 혼합매체(媒體) 즉, 재료와 또 다른 재료의 복합개념(複合概念)을 어떤 매체에 의해서 단일개념으로 변조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작품을 실현하는데 여러 종류의 기법이나 재료를 혼용하는 것이다.³⁵⁾

32) 가드 클락 저, 신광석 역, 『도자예술의 새로운 시각』, 미진사, 1989, p. 200

33) 정연택, 「종합디자인-피터 볼커스(Peter Voulkos)」, 학술논문, 1997, pp. 68-73

34) 모인순, 앞의 단행본, p. 133

35) 김동준, 「Mixed Media를 주제로 한 도자조형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석사논문, 2009, p. 5

이렇듯 현대작가들은 한 가지 재료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창의적인 작품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작품을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표현양식과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작가들은 자신들의 복합적인 아이디어나 개념을 위한 재료로서 형질, 첩단매체, 대량생산물, 종이, 비닐, 빛, 소리 자연환경물까지 혼합매체로 사용하여 오브제와 같은 표현 영역을 확장하였다.

혼합재료의 사용은 설치 등의 방법을 통해 회화와 조각, 건축과 공간을 비롯한 모든 개념을 통합하는 총체적인 표현으로 인식되었다. 그 표현의 영역을 더욱 확대 시킴으로써 현대미술의 구체적인 장르 구분을 무색케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모든 것은 선택과 인식에 따라서 하나의 매체로 등장할 수 있다는 개념과 기능성의 확장에 큰 기여를 하였다.

믹스드 미디어는 다다이즘 이후 팝아트에 이르러 현대미술의 본격적인 통합을 의미하게 된다. 각각의 이념을 넘어 소재, 방법, 개념 등이 확대되고, 상호보완이 되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이 시기야말로 믹스드 미디어가 현대미술에 나타나게 된 시대적인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

		
<p><그림12> Georges Braque 과일접시와 유리잔이 있는 정물, 1912 36)</p>	<p><그림13> Pablo Picasso 등나무가 있는 정물, 1912 37)</p>	<p><그림14> Pablo Picasso 암생트 잔, 1912 38)</p>

20세기 초 회화에서 파피에콜레 (Papier-Colle)라는 혼합매체를 이용하는 기법은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이후 조지 브라크(George Braque)를 중심으로 하여 나타났다. 1912년 조지 브라크가 「과일 접시와 유리잔이 있는 정물」 <그림12> 에 나뭇결이 인쇄된 벽지 조각을 캔버스에 부착함으로써 '파피에콜레'를 탄생시켰다.

36) <http://blog.daum.net/hyeanj/7969065>

37) <http://blog.daum.net/hyeanj/7969065>

38) http://www.bongkim.com/bongkim/skin/board/b_webzine

이들은 신문이나 벽지와 같은 재료를 소묘나 회화 작품의 표면에 조합시키는 콜라주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회화 기법의 측면에서 혼합재료를 통한 실험으로 자신들의 큐비즘(Cubism)을 전개해 나갔다.

큐비즘의 최초의 콜라주 작품은 1912년 피카소의 「등의자 있는 정물」 <그림13>에서의 밧줄 도입인데, 이는 현실사물을 화면에 도입시켜 재료의 단일성과 전통적인 시각영상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등 이미지 강조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작품은 최초의 섬유재료인 밧줄을 사용함으로써 섬유재료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³⁹⁾

1914년 작품 「압생트 잔」 <그림14>은 이러한 콜라주기법의 대표적 작품이다. 피카소는 그의 작품에 실제의 오브제나 오브제의 일부를 도입하는 작업을 했다. 그와 같이한 브라크는 “묘사된 오브제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그것은 만져 볼 수 있는 실제적인 것으로도 만들어져야 한다. 비전통적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어떤 기교나 매체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입체주의자들은 새로운 재료와 표현기법의 모색이 예술의 기교적인 면보다 현실에 직접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시하게 됐고, 믹스미디어의 배경적인 의의를 지니게 되었다. 그 후 콜라주는 미래주의, 다다주의, 초현실주의에 걸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작가들의 표현기법으로 지속되고 있다.⁴⁰⁾

조형예술에 있어서 다양한 표현양식과 재료선택 영역의 확대는 여러 가지 재료, 형태, 기법 등에 많은 변화의 발전을 가져왔다. 무의미하게만 보였던 사물이 작가의 선택을 통해 존재의미를 부여 받아 독특한 예술의 표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표현의식의 확장을 통해 현대미술이 새로운 조형적 영역과 표현으로 전환하기 위한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이와 같이 혼합매체의 발달은 도자조형예술이 현대미술사의 표현 형식과 개념에 있어 유기적 연관성을 지니고 표현되어 순수조형예술의 한 양식으로서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미술영역의 통합으로 인한 복잡성을 뜻하는 것으로서 현대미술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9) 쟈슨, 김윤수(역), 『미술의 역사』, 삼성출판사, 1978, p. 617

40) 김동준, 앞의 논문, p. 8, 재인용

제 3절 집의 이미지를 응용한 작품분석

인간에게 집이란 단순히 주거지로서의 물리적인 기능을 벗어나 정서적 의미로 까지 확대되었고, 집의 이미지는 현대 예술작품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시대의 집은 그 의미와 그를 이루는 삶의 형태도 같이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들에게 집은 작품의 소재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집”이라는 공간의 각 개인의 생활양식과 집 안에서의 경험에 따라 각 자 다른 의미를 지닌 집의 의미가 작품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장에서는 현대예술 작품 속에 나타난 집의 이미지를 응용한 작품들을 찾아 작품 속에 나타난 집이 상징하는 의미와 표현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하였다. 집의 이미지를 응용한 작품들을 단행본으로 찾기에 어려움이 있어 인터넷 자료 중심으로 작품들을 모아 정리하였다. 집의 이미지를 응용한 작품들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 미술전시 정보사이트인 ‘네오룩(neolook)’, ‘아트허브(art hub)’, ‘뮤:움(mu-um)’ 등의 인터넷에 소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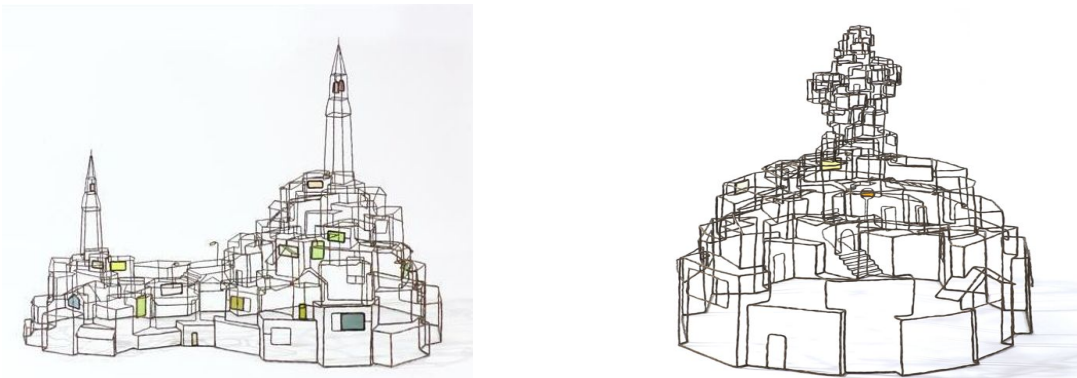
작품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자의 작품에 영향을 준 대표작가 모준석, 서도호, 이경주 3명의 작가를 선정하여 작가별 작품분석을 하였다. 이외에도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을 회화, 조각, 도자, 설치, 사진으로 분류하여 분야별 작품분석을 하였다. 집의 이미지를 응용한 작품분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작가별 작품 분석

가. 모준석 (1984~)

모준석은 작가노트에서 "나는 유년시절부터 잦은 이사를 다니며 집을 옮겨 다녔다. 그때마다 타지라는 새로운 공간과 직면해야 했다. 새로운 집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나의 짐들을 버려야 하기도 했고, 삶을 환경에 맞추어야 했다." 라고 하였다.⁴¹⁾

작가노트의 글과 같이 모준석의 작품의 근원지는 유년시절의 잦은 이사와 오랜 기숙사 생활에서 비롯된 경험에서 시작됨을 알 수 있다. 모준석의 작품은 집으로 은유되는 개인이 모여 한 마을의 형상을 이루고, 그 마을이 또 다른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작품 속에 나타나는 집과 마을의 형상은 유년시절 그가 실제 거주했던 달동네를 모티브 삼았으며, 무수한 집과 달동네 형상으로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영역을 지키며 살아가며 갈등을 넘어 하나가 됨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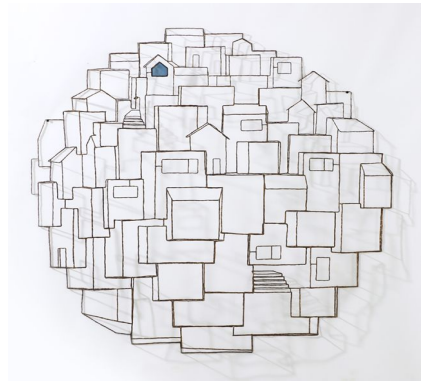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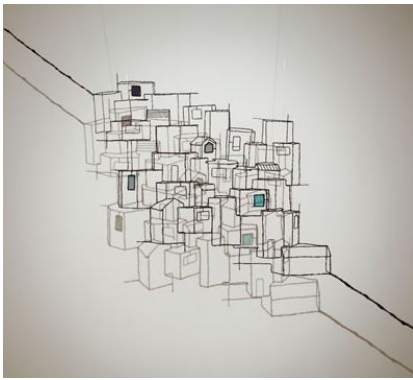
<그림 15,16> 모준석, 동행, 2010 - 5월의 신부, 2011 ⁴²⁾

<그림 15, 16>은 동선과 스테인드글라스만으로 이루어진 입체적인 집으로, 외부와 내부가 비워져 있음으로 닫혀져 있는 경계의 영역을 무너뜨리고 공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였다.

41) <http://www.mu-um.com/exhibition/?action=view&sr=3047>

42) <http://www.mu-um.com/search/?section=artworks&q=모준석>

다양한 형태의 외곽과 형형색색의 스테인드글라스는 시각적인 장치로 개인의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한다. 이러한 주거지의 형태에 따라 생활자가 맞춰 나가야 하거나 또는 일정 장소가 그 사용주에 따라 용도가 변화하듯 개인 역시 타자와 조우하였을 때 서로 조율해야 하는 소통과 비움의 상징을 표현하였다.



<그림 17,18> 모준석, 우리는 공사중, 2011- 에클레시아(ecclesia), 2010 43)

앞에서 살펴본 작품들과는 달리 <그림17> 작품은 다듬어지지 않은 동선을 돌기처럼 빠져 튀어나오거나 옆으로 날카롭게 빠져 나오게 함으로서 치열한 내면의 싸움을 표현한 작품이다. 뒤틀리고 날이 선 철골들로 이루어진 집의 형태는 자아를 나타내며 자신의 비위념으로 타인과의 소통을 표현한 작품이다.

<그림18> 작품은 어느 한군데 빈틈없이 집의 형태들이 겹겹되어 있다. 짜임새 있게 맞춰져 있는 집들은 원형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는 서로를 받아들이고 포용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피라미드 구조로 된 마을의 형태를 선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연결시킴으로서 타인과 나와 의 사이에 경계가 없는 세상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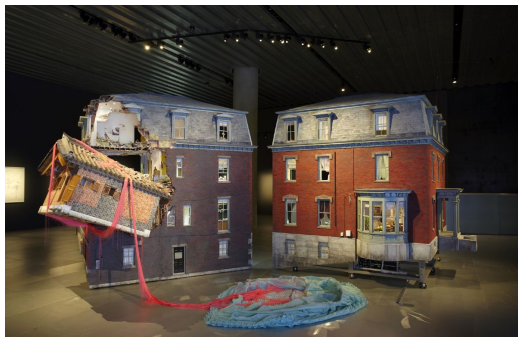
모준석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동선과 스테인드글라스로 이루어진 집의 형태는 하나의 마을을 형상화하기도하며, 자신과 타인의 삶을 구분해주는 매개체이자 자신의 자아를 표현하기도 한다. 집을 통해서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경계나 소유의 공간이 아닌 만남과 소통의 상징물로 집을 나타내며 작품 안에 내포된 소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 <http://www.neolook.net/archives/20111110h>

나. 서도호 (1962~)

서도호는 자신이 관심을 갖는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무형의 은유적이고 심리적인 공간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서도호의 작품의 근원지는 집에 관한 고찰을 통한 자아 성찰에서 시작되었다.

서도호가 자신을 둘러싼 자신 이외의 모든 것들과의 관계에 대한 탐색을 시작한 것은 서른 즈음, 유년시절을 보낸 서울 성북동 한옥을 떠나 유학길에 올라 뉴욕의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면서부터다. 문화적 이질감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그가 생활하는 장소, 곧 집이라는 공간의 구석구석을 관찰하도록 이끌었고, 서도호는 반투명하고 하늘하늘한 폴리에스터 천과 금속 틀로 자신이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 집들을 재현하기 시작했다.⁴⁴⁾



<그림19,20> 서도호, 별뿔별 - 1/5 (Fallen Star 1/5th Scale), 2011, 앞과 뒤 45)

<그림19, 20> 「별뿔별-1/5」은 과거 서도호가 한국에서 살던 한옥이 현재 그가 지내는 미국 아파트에 충돌해 박힌 모습을 1/5 스케일로 제작한 작품으로 미국과 한국문화의 충돌 안에서 혼란스러워 하는 작가의 모습을 잘 반영한 작품이다. 이 혼란은 이내 한옥을 품은 미국 아파트로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에 적응하게 되는 모습을 작품으로 나타내었다. 앞과 뒤로 아파트의 내부와 집 안을 구성하였던 물건들을 세밀하게 재현함으로써 작품에 흥미를 더 해주었다.

이처럼 서도호는 서로 다른 문화와 공간의 충돌을 집이라는 구조물을 통해 표현하였다. 작품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기억과 역사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집은 물

44) <http://foundmag.co.kr/22873>

45) <http://www.mu-um.com/exhibition/?action=view&srl=2677>

리적, 건축적 구조물이면서 개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장치이며, 동시에 과거와 현재, 한국과 미국 등 시간과 공간을 연결시키는 매개체가 된다.



<그림 21> 서도호, 투영(Reflection), 2005-2011 46)

<그림21> 「투영」은 집을 통해 자아를 찾는 여정임을 암시하며 한옥의 작은 문을 천으로 재현한 작품이다. 수평으로 넓게 펼쳐진 푸른 색조의 천을 사이에 두고 위 아래로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문은 수면에 비친 투영과 같이 보이고, 보는 이에게 물 속에서 수면을 올려다보며 걷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한다. 호수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자아를 바라봄으로서 서도호의 집을 돌아보아 자아를 숙고할 수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⁴⁷⁾

서울과 뉴욕, 런던, 베를린, 파리 등 세계를 오가며 유목민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서도호는 작품을 통해 자신이 살아온 집에 대한 개념과 애착을 잊어가는 현대인들에게 집의 의미를 상기시켜준다.

그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인 집은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하며 집은 개인이 가지는 최소한의 공간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며 자아와 타자, 문화와 문화, 안과 밖 등의 상이한 존재들의 관계맺음이 일어나는 장소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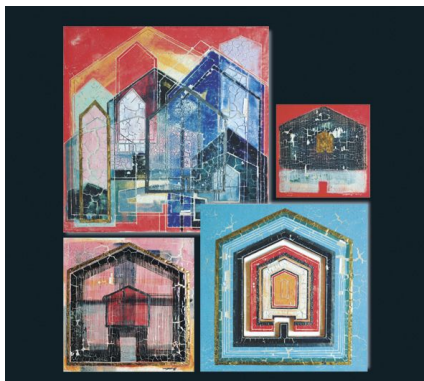
46) <http://www.mu-um.com/exhibition/?action=view&srl=2677>

47) <http://www.mu-um.com/exhibition/?action=view&srl=2677>

다. 이경주 (1968~)

이경주는 작가노트에서 “나는 집을 짓고 그린다. 세상의 모든 집을 짓고 그린다. 끊임없이 집을 생각하고, 집을 찾고, 집을 상상한다. 집은 내가 되기도 하고 네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풍경이 되고, 도시가 된다. 그래서 집은 사람이 되고, 삶인 것이다. 우리의 삶을 짓고 그린다. 다양한 삶의 조각을 맞추며 나는 변화하고 있다.” 라고 하였다. 48)

집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한 이경주의 작품세계는 도판회화, 도자조형, 도자설치 등 다양한 표현방법과 풍부한 색채를 통해 건축적 공간인 집을 심리적 공간과 정체성으로 해석함으로써 인간과 집의 관계성에 주목하였다. 단순화 된 집의 형태에 다양한 상징과 칼라를 배치해 개인적인 공간인 집을 그 속에 살고 있는 개인의 정체성과 삶을 반영하는 공간으로 그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각자가 살아온 개인의 역사 속에서 과거의 기억과 향수를 건져 올리게 하는 드로잉 기법의 작품들이다.



<그림22, 23> 이경주, 그 남자의 집, 2009 , 집을 찾아서 꿈꾸는 집 I, II, 2008 49)

<그림22, 23> 작품은 세밀한 색채에 힘입어 추상적인 구성과 아름다운 색채로 시각화된 집은 감상자의 개별적인 경험과 정서를 통해 공유되면서 새로운 공간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다. 수많은 선과 색들의 중첩과 반복으로 조형화된 집은 건축적 구조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표정과 감정을 담아내는 다층적인 상상

48) http://www.arthub.co.kr/sub01/board05_view.htm?No=1730

49) <https://khba.or.kr/juteck6/read>

공간이다. 이러한 집은 일상적인 집이 지닌 물질적인 가치가 아닌 사람들을 꿈꾸게 하는 행복 공간을 지향한다.⁵⁰⁾



<그림 24, 25, 26 > 이경주, Welcome To My World, 2012 ⁵¹⁾

<그림 24, 25, 26> 「Welcome To My World」는 80여 점의 다채로운 도판회화로 구성되었다. 이 작품은 단순화 된 집의 형태에 다양한 상징과 칼라를 배치해 개인적인 공간인 집을 그 속에 살고 있는 개인의 정체성과 삶을 반영하는 공간으로 그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이경주는 집이라는 주제를 보편적이면서도 개인적인 대립되는 양자적 의미를 다 포함하여 다양성을 획득하였다. ⁵²⁾

이경주는 도자조형, 도판 드로잉, 도자설치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집의 이미지를 표현함으로써 현대도예의 폭넓은 표현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자라는 재료와 장르의 가능성은 회화적으로 또는 구조적으로 확대되어 나타났다. 다양한 집의 이미지를 통해 집이라는 공간과 정체성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되며 현대인들에게 집이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이경주의 추상적인 구성과 세밀한 색채로 이루어진 집은 보는 이마다 개별적인 집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켜줌으로서 개인의 경험과 정서를 통한 새로운 공간해석을 이끌어주고 있다. 더불어 물질적인 의미로 전락해버린 현대사회의 집의 의미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50) http://www.arthub.co.kr/sub01/board05_view.htm?No=1730

51) http://www.arthub.co.kr/sub01/board05_view.htm?No=7357






52) http://www.arthub.co.kr/sub01/board05_view.htm?No=7357

〈표 3〉 작가별 작품분석

작가명	집의 상징성	작품
모준석	<p>개인을 상징하는 집은 안과 밖이 따로 없는 집의 통 구조 형태로 타자를 향해 열린 마음을 나타내며 공존, 소통, 하나 됨을 상징함</p>	 <p>동행, 2010</p>
서도호	<p>시공간을 초월하여 자아와 타자, 문화, 안과 밖의 상이한 존재의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이며 작가 개인의 정체성을 상징함</p>	 <p>별똥별 - 1/5, 2011</p>
이경주	<p>사람의 다양한 감정과 표정을 담아내는 심리적 매개체로 개인의 정체성과 삶을 반영하는 공간을 상징함</p>	 <p>그 남자의 집, 2009</p>

2. 분야별 작품분석

〈표 4〉 분야별 작품분석 (도자)

작가명	내용	작품
데이빗 스테블리 David Stabley	상상속의 집을 일상생활의 공간에 동화 속의 한 장면인 듯 주관적인 시각으로 꿈과 환상의 이미지를 회화적인 기법으로 표현함	 <p>Shoe House</p>
이재후	빈틈없이 세워진 달동네 풍경들로 현대인들의 삶 속에 담긴 이야기를 나타내고 소멸되는 집을 적막하고 쓸쓸하게 표현함	 <p>테라 빌리지, 2010</p>
장은선	단순한 집의 형태에 각기 다른 계단과 창문에 변화를 줌으로서 같은 형태의 집이라도 살아가는 사람에 의하여 다르게 변화되는 집을 표현함	 <p>마음으로 가는 길, 2006</p>
조혜영	집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자연의 이미지와 집의 형태를 결합하여 작가의 내적 심상의 꿈의 이미지를 표현함	 <p>아름다운 세상, 2004</p>
한애규	여성의 시각에서 집을 심리적으로 바라보고 가정주부로서의 집은 휴식처가 아닌 살림을 하는 공간을 상징하며 여성의 일터를 표현함	 <p>즐거운 우리 집- 신바람, 1993</p>

데이빗 스테블리 (David Stabley)는 샤갈과 피카소의 작품에 영감을 받아 꿈의 이미지와 환상적인 상황을 표현하고자 하는 자신의 내적 영감에 따라서 도판, 또는 집의 형태에 그림을 접목하여 회화적인 도자조형을 표현했다. <Shoe House>는 집과 운동화 오브제 형태를 접목하여 집을 일상생활의 공간이 아닌 동화속의 한 장면인 듯 한 꿈의 이미지와 환상적인 상황을 주관적인 시각으로 이미지들을 담아 회화적인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이재후는 빈틈없이 세워진 집들과 도시 이미지를 현시대의 경쟁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전쟁터로 인식하였다. <테라 빌리지>는 도시 외곽에 존재하는 달동네를 거친 조합토 도판 위에 작은 집들을 빈틈없이 세우고 다양한 색 안료와 유약을 입혀 표현함으로써 현대인들의 삶의 터전이자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가 생성되고 소멸되는 집이라는 공간을 적막하고 쓸쓸하게 표현하였다. 달동네 도판으로 치열하고 고단한 삶으로 점점 단단해지는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장을 주고자 한 작품이다.

장은선은 판 성형으로 집의 형태를 최대한 단순화 하여 색 화장토와 안료를 사용하여 집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단순한 집의 형태에 계단의 이미지를 작은 막대 형식으로 자유롭게 붙여 줌으로서 리듬감이 생기도록 집의 이미지에 변형을 주었다. 또한 같은 크기의 집에 색색의 창을 표현하고 문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같은 집이라도 살아가는 사람에 의하여 다르게 변화되는 집을 표현하였다.

조혜영은 집 형태에 자연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자신이 집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였다. 실제 자연물을 캐스팅하여 실제의 모습을 표현하였으며 내적 심상의 꿈의 이미지를 슬립자체 색을 사용하여 꿈과 현실 사이 속의 집을 상징하였다. 각기 다른 집들이 모여 한마을을 이루는 작품의 형상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집을 나타내고 있다.

한애규는 <즐거운 우리 집> 연작에서 집을 여성의 시각에서 심리적으로 집을 표현하고 있다. 작품은 겉으로 보기에 행복한 가정을 나타낸 것 같지만 작품에 나타나는 여성은 가정주부로서 집은 휴식처가 아닌 살림을 하는 공간을 상징하며 여성의 일터를 의미한다. 작품은 가정주부의 여성의 시각에서 본 결혼과 가족에 대한 문제를 단도직입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작품 안에 스며들어 있는 여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집을 통해 담고 있다.

〈표 5〉 분야별 작품분석 (조각)

작가명	내용	작품
권창남	여성상을 표상하는 사물 위에 놓인 정자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개념과 현재의 가족개념 사이의 갈등을 표현함	 <p>향(鄉) 그리움, 2011</p>
박대성	숫대처럼 솟은 참나무를 통해 인간과 집을 강조하고 집과 사람을 동일시하여 자신의 내밀한 공간이자 은신처인 집을 표현함	 <p>덤벙 주초, 2010</p>
송현호	유년시절 기억 속 고향 집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며 앞마당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호박의 형태를 소재로 표현하여 유년의 작은 나라로 함축함	 <p>나의 집으로, 2008</p>
임승천	도시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들의 삶을 집의 이미지로 나타내며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를 방주의 형태로 표현함	 <p>Dream ship 3호</p>
최승원	나무를 통해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원초성을 깊은 산속 작은 암자와 산이 조화된 자연의 형상을 표현함	 <p>무소유, 2011</p>

권창남은 고향의 집과 소박한 가정관을 통해 아련한 옛 추억이 담긴 아담하고 정겨워 보이는 소박한 집과 풍광이 좋은 곳에 있는 누각을 표현하였다. 여성성을 표상하는 다듬이돌에 놓여있는 정자는 과거 남성들이 풍류를 즐기던 공간을 상징하며 이러한 대비를 통하여 전통적 가부장적 가족개념과 현재의 가족개념 사이에서의 나타나는 갈등을 표현하였다.

박대성의 솟대를 닮은 작품 <덤병주초>는 돌 위에 기둥처럼 세운 참나무를 통해 인간과 집의 관계를 나타낸다. 작가는 인간과 집을 강조하며 집이 사람이고 사람이 집으로 상징한다. 돌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나무 기둥 위는 말단 부분에서 집의 형태로 변모하고 사람의 형태로 내부가 빈 구멍으로 남아 있다. 바깥으로 투영된 사람의 실루엣은 타자의 자리를 상징한다. 자신의 내밀한 공간이자 은신처인 집을 서로를 비움으로서 상호성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전환하였다.

송현호는 이탈리아 유학시절 타향에서 집에 대한 그리움을 대리석을 조각함으로써 자신의 내적 마음을 투영시켰다. 작품의 하반부에 나타나는 호박의 형태는 유년시절 앞마당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산물로 유년시절의 기억의 매개체이며 유년시절의 작은 나라를 의미한다. 작품에 나타나는 집과 나무 사이의 공간은 작가의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유년시절 기억 속 고향의 집에 대한 그리움을 그대로 표현하였다.

임승천은 소외된 존재와 국가라는 거대한 집단 간의 내밀하고 모순된 구조에 대해 이야기한다. 집의 이미지는 현시대의 아파트문화 현상으로 도시개발로 인한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들의 삶을 나타내며 안전하고자 하는 방어를 방주로 표현하였다. 방주는 작가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며 방주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사회의 모순된 구조를 꼬집으며 허구의 내러티브를 만들어 냈다.

최승원은 작품의 소재인 나무를 통해 자연에서 Imaging Cross의 원초성과 자연스러움을 진지하게 생각해 봄으로서 작품의 소재인 나무를 통해서 집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무소유>는 깊은 산 속, 작은 암자가 산과 함께 조화된 형상을 자연 그대로의 최소한의 인공을 가해 나무의 섬세한 결을 따라 작업을 함으로서 자연을 돋보이게 하고 조화를 이루어 제 역할을 해내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표 6〉 분야별 작품분석 (설치)

작가명	내용	작품
김지은	<p>집들의 공사현장을 관찰하여 설치작품으로 시각화하여 주택문제로 인한 근교화와 탈 도시화 현상을 나타냄</p>	 <p>Developer's House, 2010</p>
랜디&카트린 Randi&Katrine	<p>공간이자 얼굴로서의 집의 이중적인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건축물과 인간간의 무수한 유사성을 건축의 의인화된 모습으로 표현함</p>	 <p>the house in your head, 2008</p>
서상희	<p>오래됨, 추억, 따뜻함으로 함축하고 있는 과거의 집을 상징하여 과거의 흔적과 현재의 모습을 혼합시킨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집을 표현함</p>	 <p>Grandfather's house, 2012</p>
유코 시라이시 Yuko Shiraishi	<p>일본 전통 다실을 공간적으로 재해석하여 생존을 위한 공간과 시공간을 초월한 것처럼 보이는 다실의 공간이 하나의 장소에 중첩하여 표현함</p>	 <p>Space Elevator Tea House, 2009</p>
최성임	<p>개인적인 삶을 각설탕 집으로 나타내고 각설탕 집의 집합을 통한 이상의 집을 상징하여 삶에 대한 성찰로 집을 미지의 장소로 표현함</p>	 <p>집 섬, 2012</p>

김지은의 <Developer's House>는 모형 내부의 공간은 눈속임(trompe-l'oeil) 프린트를 이용한 콜라주 기법으로 주택 건설의 뼈대 구조를 재현하였다. 이는 작가가 미국에 살면서 직접 관찰한 집들의 공사현장을 설치를 통해 시각화 한 것이다. 이는 미국사회의 주택 건축과 관련하여 볼 수 있는 근교화와 탈 도시화 현상의 원인과 결과물을 예시적으로 나타내었다. 더불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되는 반복적이고 규격화된 상품처럼 변질되어진 집의 의미를 소모품의 겉모습의 상징물로서 표현하였다.

렌디와 카트린은 소박한 실내, 집, 가정의 주거지를 작품의 주제로 쓰면서 일상의 허구를 기이하고 초현실적으로 표현하였다. 공간이자 얼굴로서의 집의 이중적인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건축물과 인간 간의 무수한 유사성을 건축의 의인화된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집은 개인과 주체로서의 사람과 외관과 이미지이면서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공간적인 실체로서의 집 사이에 대화를 통해 집이란 안과 밖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표상한다.

서상희의 집은 사람이 일생을 함께 나가는 개인의 역사를 담고 있음을 상징한다. <Grandfather's house>은 기억 속 과거의 집이며 오래됨, 추억, 따뜻함을 함축하고 있다. 정확한 구조를 가진 집이 아닌 과거의 흔적과 현재의 모습을 혼합시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집을 합쳐 새로운 집의 형태를 나타나 보이기도 하면서 유기적으로 변형된 새로운 공간을 표현하였다.

유코 시라이시는 17세기 일본 전통 다실을 공간적으로 재해석하여 물리적인 벽이나 기둥 너머의 가상적 관계들을 표현하며 전통 다실을 건축적 공간과 우주가 겹쳐지는 상상의 통로로써 재해석하였다. 우주 혹은 공간이라는 단어를 통해 생존을 위한 공간과 시공간을 초월한 것처럼 보이는 다실의 공간, 이 두 가지의 상이하면서도 예외적인 공간들이 이 작품에서는 하나의 장소에 중첩되어 있다.

최성임의 <집>시리즈는 각설탕으로 만들어진 조형물이다. 각설탕의 에너지원 물질, 순백색의 느낌, 흩어지고 바스러지기 쉬운 가루를 뭉쳐놓은 느낌을 집의 이미지와 연결시켜 표현하였다. 이러한 집의 이미지는 작가의 개인적인 삶을 각설탕으로 형상화 한 것이며 각설탕 덩어리를 하나씩 쌓아 올리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 같이 쌓으면서 채우고 그렇지만 계속 비워지는 느낌을 표현한 것이다.

〈표 7〉 분야별 작품분석 (회화)

작가명	내용	작품
김덕기	<p>집을 통해 작가의 가정생활을 나타냄으로서 촘촘히 엮인 집의 이미지들로 가족공동체를 상징하고 꽃과 나무로 가족의 화목(和睦)을 표현함</p>	 <p>우리 집, 2010</p>
김보민	<p>작업실 모퉁이 집을 통해 개인의 기억을 담고 있으며 과거의 흔적과 현재의 모습 시공간을 중첩하여 이상적 그리움의 세계를 구현함</p>	 <p>모퉁이 집, 2012</p>
김선숙	<p>집을 통해 자아를 찾는 과정에서 가정, 가족, 사회 속에서 끊임없는 관계와 선택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함축적으로 표현함</p>	 <p>집으로 오세요, 2012</p>
윤정섭	<p>실재하는 일상의 풍경을 파스텔색채와 모노톤으로 담백하게 표현함으로서 유년시절의 체취를 간직한 집과 주변을 기억 속의 풍경을 나타냄</p>	 <p>0704,11,41, 2010</p>
최혜진	<p>불빛으로 드러난 방안과 집의 외부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살고 있을 누군가의 삶과 그 몸을 삶을 지탱하는 원천과 힘의 열망을 나타냄</p>	 <p>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2009</p>

김덕기의 작품은 자연과 벗하며 이웃과 정을 나누는 이상적인 가족공동체의 모습이 잘 나타나있다. 그는 우리가 잊어 가고 있는 집을 통해 가정과 이웃을 표현하고 있다. 즉, 집을 물리적 공간만이 아닌 사랑, 가족 등 감성적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화려한 원색으로 연이어서 투명하게 그려진 집들의 구조는 한 가정이 다른 가정들과 만나 마을을 이루는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서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다.

김보민은 옛 그림에 현대건물을 그려 넣음으로서 작품에 현대인의 정서를 담아 과거의 흔적과 현재의 모습 뒤섞여있는 모습을 이상적 그리움의 세계로 표현하고 있다. 김보민의 작업실 시리즈 작품 <모퉁이 집>은 작가의 작업실이 있는 집이다. 작업실은 작가의 사유와 실천의 공간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작가 개인의 사적인 기억, 욕망과 좌절 정서적인 부산물의 창고로서 작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요소이다.

김선숙의 작품은 조형체계를 건너뛰고 상징성을 띤 이미지들로 거칠고 잘 다듬어지지 않는 형식으로 잠재된 인간내면을 이야기하고 있다. 작품에 나타나는 붉은 지붕은 자신의 보금자리인 집을 상징하고 있으며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식한 가정, 가족, 사회 속에서의 끊임없는 관계와 선택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소하는 여정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작가의 내면의 심리를 감추지 않고 여성작가로서 지닌 고충을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형식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윤정섭은 서울의 한구석에 실재하는 풍경을 그림으로써 파스텔색채와 모노톤으로 담백하게 표현하였다. 모던한 풍경은 작가의 일인칭 시점이 아니라 보는 이와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풍경으로 나타내고 있다. 공간의 경계를 감춤으로서 비어 있는 풍경은 작가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풍경을 돌아보고자 하는 관객의 노스텔지어를 담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최해진은 나무와 숲, 해와 별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도시의 주거공간을 그렸다. 도시는 개별적인 공간들이 모여 만들어진 세계이다. 작가는 이러한 집을 그 안에 삶을 영위하는 이들의 보이지 않는 무한한 에너지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작품은 밤을 배경으로 선택했는데, 이는 노동과 일이 끝나고 다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비로소 휴식과 안락을 경험하고 있는 집의 외부가 점등하는 불빛을 표현한 것이다. 작가는 도시의 야경이지만 사람들의 삶의 공간을 기계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의 성격을 이미지로 보듬어내는데 중점을 두었다.

〈표 8〉 분야별 작품분석 (사진)

작가명	내용	작품
강홍구	빈집을 사진으로 찍고 프린트하여 색채를 넣어 비워있는 집을 채움으로서 집 안에 들어 있던 기억과 이야기를 주관적으로 표현함	 <p>그 집 황토, 2010</p>
안희정	규격화되고 일상화된 삶의 양태 속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집을 큐브형태로 표현함으로써 현대인들의 단절된 고립감과 소통의 문제를 나타냄	 <p>Cube sewing scape, 2010</p>
원성원	작가의 유년시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 장소가 중첩되어 나타난 열 한 장의 사진에 스토리를 부여함으로써 공통의 경험을 이끌어냄	 <p>일곱 살 낮선 놀이터, 2010</p>
이민경	오래된 주택단지의 풍경을 통해 유년시절 집을 회상하며 작가의 사적 기억과 경험 속에 나타나는 집을 표현함	 <p>높은 집, 2012</p>
최중원	현대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주거환경인 아파트를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나타내어 그 안에 삶을 공유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담아냄	 <p>동대문아파트, 2010</p>

강홍구의 작품은 재개발, 뉴타운으로 인해 사라져버린 집들을 상기하며 집 안에 깃든 기억과 기록도 함께 사라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사라져버린 집들을 다시 기억하고자 빈집을 촬영하여 프린트, 색칠들의 과정을 통해 심미성을 부여한다. 비워있는 집을 촬영하여 작가 자신만의 생각을 입혀놓음으로서 그 풍경 속에서 살았던 인간들이 남기고 간 이야기를 작가 주관적인 해석으로 표현하였다.

안희정의 작품에서 나타는 큐브는 역설적이고 반어적 의미를 표출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산업화된 도시의 대표적인 표상인 아파트인 사각형의 형태라는 의미는 은유적으로 담고 있다. 천을 이용해 인화한 다양한 아파트, 집의 이미지를 말랑 말랑한 솜으로 채워진 네모난 상자인 큐브 형태로 제작하여 규격화된 양태를 표상하였다. 큐브를 통해 작가는 정형화되고 고립된 현대인들의 삶에서의 소통의 문제를 표현하였다.

원성원은 1978년 일곱 살 때의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열 한 장의 사진으로 이루어진 동화책 같은 구성방식을 통해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경험을 이끌어낸다. 자신의 기억에서 끄집어낸 과거 속 이야기를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찍은 사진 소스들을 합성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작품에 나타난 장소들은 각기 다른 장소, 시간에서 따온 이미지들이지만 유년시절을 회상하기 충분한 매개체로 작가의 이야기가 동시에 자신의 이야기처럼 작용한다.

이민경은 자신의 유년기의 집들과 닮아 있으면서도 다른 낯고, 가난하고, 황폐해진 풍경들을 관심을 가지면서 작업을 하게 되었다. 누군가의 공간이었던 집을 통해 작가는 자신의 유년기의 집을 잃어버린 마음을 자극받았다. 사진을 오리고 형상을 만들어 연출하여 사진을 찍는 작업을 시작으로 채집했던 여러 풍경을 조합해 보고 그것을 촬영한 작업과 작업이 진행되면서 만났던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재구성하였다. 작가의 사적기억과 그들의 이야기들 가운데 공통분모를 찾아내어 작품으로 형상화하였다.

최중원은 현대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주거환경이자 다양한 형태와 크기, 입지조건에 의해 부의 척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은 아파트에 대해 주목하였다. 전 후 복구사업과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아파트 개발, 문득 '그 초기의 모델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에 대한 호기심으로부터 작업을 시작하였다. 최중원의 작품은 근대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한국주거역사에 대한 기록이자 그 안에서 삶을 공유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표 9〉 분야별 작품분석 (혼합매체)

작가명	내용	작품
권인숙	<p>일상적인 사물과 공간에 대해 개인마다 상이하게 맺어진 경험과 기억의 잠재된 의미를 제각기 사적인 기억과 이야기가 담겨 있는 소재로 상징함</p>	 <p>비둘, 2010</p>
권종현	<p>조각난 형꼴, 종이, 스팅글 등의 오브제를 결합하여 만든 각기 다른 집의 이미지를 모아 큰 성을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상징함</p>	 <p>Dream of Village, 2004</p>
송성진	<p>각자 다른 시선으로 그려낸 집의 의미를 같은 공간에서 풀어내는 도시에서의 삶을 주제로 집 소재로 인생과 삶을 이야기함</p>	 <p>다름을 짓다, 2011</p>
이경애	<p>여러 집의 이미지를 작가는 경험, 희망, 꿈, 향유의 공간으로 삶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집을 표현함</p>	 <p>Going Home, 2012</p>
최순민	<p>콜라주, 한지, 인조보석 오브제를 도입하여 표현한 집은 종교적인 의미로 빛과 광채가 충만한 성소로 편안하고 쉬고 싶은 집을 상징함</p>	 <p>My father's house, 2011</p>

권인숙은 일상생활 속에서 쓰이는 사소한 물건이나 공간과의 작은 만남들을 작업으로 통하여 작가만의 개인적인 경험이 묻어 있는 공간을 작은 상자 안에 담아 마치 연극무대나 혹은 인형극세트처럼 작품을 표현한다. 이러한 작업은 작가의 경험과 연결되는 기억의 끈들을 묶어 새롭게 하는 과정이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보는 이마다 개인마다 상이하게 맺어진 경험과 기억의 잠재의식 속에 내재된 일상적 사물과 공간을 끄집어내게 한다.

권종현의 작품은 조각난 형꼴, 종이, 스펅글 등의 오브제를 각 기 다른 집들의 이미지를 형상화 하여 캔버스 위에 모아 붙이고 꿰매어 하나의 큰 성과 같은 집의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작품에 나타난 외소한 집들을 모아 만들어진 큰 성은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의미하며 작가의 내적 심상에 담긴 꿈의 마을이라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

송성진은 삶을 주제로 한 문화주택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이 설계한 집의 형태를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과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자신이 꿈꿔왔던 삶의 집을 꾸미게 하여 각자 다른 시선으로 그려내 집의 의미를 같은 공간에서 풀어냈다. 작품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작가가 바라보는 시선이 한곳에 어우러져 다양한 집과 도시의 이미지를 나타내며 집이라는 하나의 소재로 다양한 시선에서 이중적 의미를 이끌어 냈다.

이경애의 집은 누구에게나 경험되어진 공간으로 희망, 꿈, 향유의 공간으로 삶의 의미를 내포하며 작가의 <Going Home> 작품주제처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으로 상징하고 있다. 이경애는 작품 속에 있는 집은 각자가 품고 있는 집의 의미가 다르듯 집의 이미지를 저마다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이러한 집을 통해 우리가 찾는 평안함의 장소를 상징하고 각자 자신만의 집을 찾아 가도록 한다. 더불어 지극히 개인적인 집을 허물고 공간적 확장을 넘어서 주변 환경과 관계를 이루며 공유하는 마을과 공동체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최순민이 나타내는 집의 이미지는 아버지의 집이다. 아버지의 집은 편안하고 들어가서 쉬고 싶은 집을 표현하였다.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집이 아니라 종교적 의미를 담아 빛과 광채가 충만한 성소를 나타내고 있다. 잡지와 같은 콜라주, 인조보석 오브제의 도입 등 여러 장식을 이용해 집을 장식하고 집의 조형을 모색함으로써 이러한 집은 창조주의 은혜 및 영화로움을 상징하고 있다.

현대예술작품들 중 집의 이미지를 응용한 작품들을 작가별, 분야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작가별 작품분석을 통해서 모준석, 서도호, 이경주의 작품에서 나타난 집의 의미와 상징, 표현법은 본 연구자에게 집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많은 영감을 주었다. 여기에 더해 도자, 조각, 설치, 회화, 혼합재료의 분야별 작품분석을 통해서 집의 지닌 내적의미와 작가들이 표현한 다양하고 새로운 이미지의 집들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작가들의 작품에 쓰인 집의 의미는 본 연구자가 생각하는 집의 의미와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유년시절 속의 집, 과거와 미래의 집, 편안하고 안락한 가정을 상징하는 집, 자신의 정체를 표현해주는 집, 현대인들의 삶을 나타내는 집, 작가의 심리적 매체인 집의 이미지 등으로 집이 지닌 의미와 상징성으로 작가들의 작품에 표현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자의 작품에도 작가들의 다양한 표현방법을 적극 수용하여 흥미로운 집의 이미지를 응용한 도자조형으로 표현하여 보는 이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쉽게 소통 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자 한다.

제 3장 작품연구

제1절 작품계획

1. 제작배경 및 의도

집이란 인간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소로서 인간생활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공간이다. 집은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인간을 보호하는 곳으로서 사용되어 왔으며, 인간의 삶을 위한 공간, 사회생활에서 오는 긴장을 해소 해주는 안식처로서의 공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집’이라는 공간 속 주어진 환경에 따라 각자 다른 생활을 하며, 집을 통해서 겪게 되는 개인의 경험에 따라 자신이 생각하는 집의 의미도 굉장히 다르다. 즉, 집이란 인간에게 있어 생명의 근원인 동시에 감성을 기르고 최초의 경험을 간직하는 세계이며, 생의 목표설정과 외부생활 활동가능성을 향한 출발점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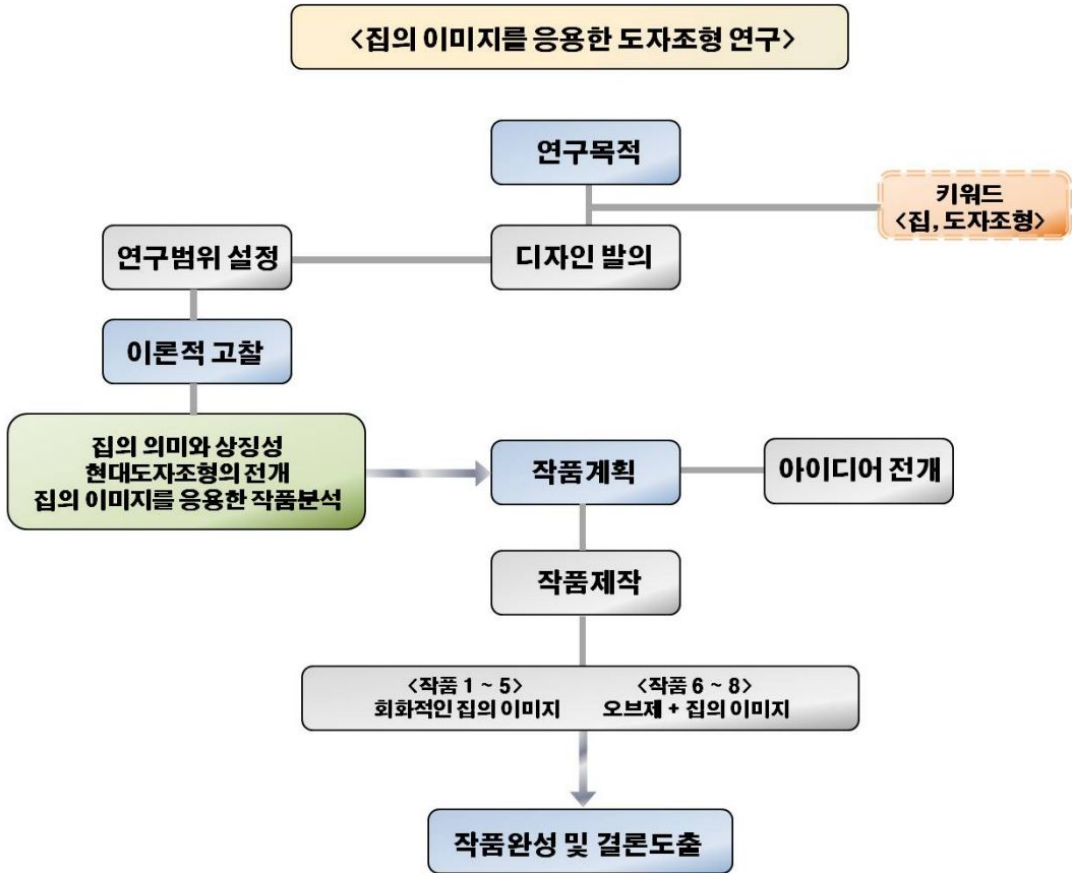
집은 자신만의 공간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작품의 매개체로 본 연구자는 개인적으로 경험한 집을 통해 집 안에 내재된 다양한 이미지를 담아 작업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집에 대한 인상은 구조나 형태와 더불어 개인의 기억이나 감정 등에 따라 매우 다르고 다양하게 표현됨으로서, 본 연구자는 주관적인 시각에 따라 일러스트적인 집의 이미지를 작품의 모티브로 삼았다. 단순히 집의 형태로 작품을 표현하기 보다는 현시대의 집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는 일상 속 오브제 형태를 차용하였다.

작품의 전체적인 컨셉은 회화적인 집의 이미지와 오브제 속에 나타난 일러스트적인 집의 이미지이다. 작품에 표현될 오브제는 현대사회를 의미하는 동시에 시공간을 담고 있는 작품의 매개체로 사물이 지닌 새로운 이미지를 도출하여 오브제 속 집의 이미지를 통해 현대인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까지도 표현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유년시절 기억 속의 집, 과거와 미래가 혼용되어 나타나는 집, 현대인들의 삶을 담고 있는 집을 도시풍경, 달동네, 오브제 등으로 표현하여 집에서 나타나는 심상을 표현한 작품을 제작하고자 한다.

2. 작품제작계획

작품제작은 아래의 <그림 27>과 같이 진행된다.



<그림 27> 작품계획도

작품은 단순한 집 형태를 응용한 조형이 아닌 유기적인 곡선으로 이루어진 원통에서 나타나는 집과 도시 이미지, 도판 위에 그려진 회화적인 집의 이미지, 오브제 형태 속에 나타나는 일러스트 그림 같은 집과 도시 이미지들로 작품을 구상하였다. 전체적으로 작품이 심플하고 일러스트적인 느낌이 나도록 하기 위해 세라믹 펜과 흡상감을 이용하여 조형의 표면에 단순한 형태의 집들과 도시풍경을 그려주고자 한다. 작품의 점토로는 백자토와 조형토를 조합하여 부드러운 조형 표면의 질감과 소성 후 흙의 갈라짐을 예방하고자 하며 세라믹 펜의 발색을 강하게 하기 위해 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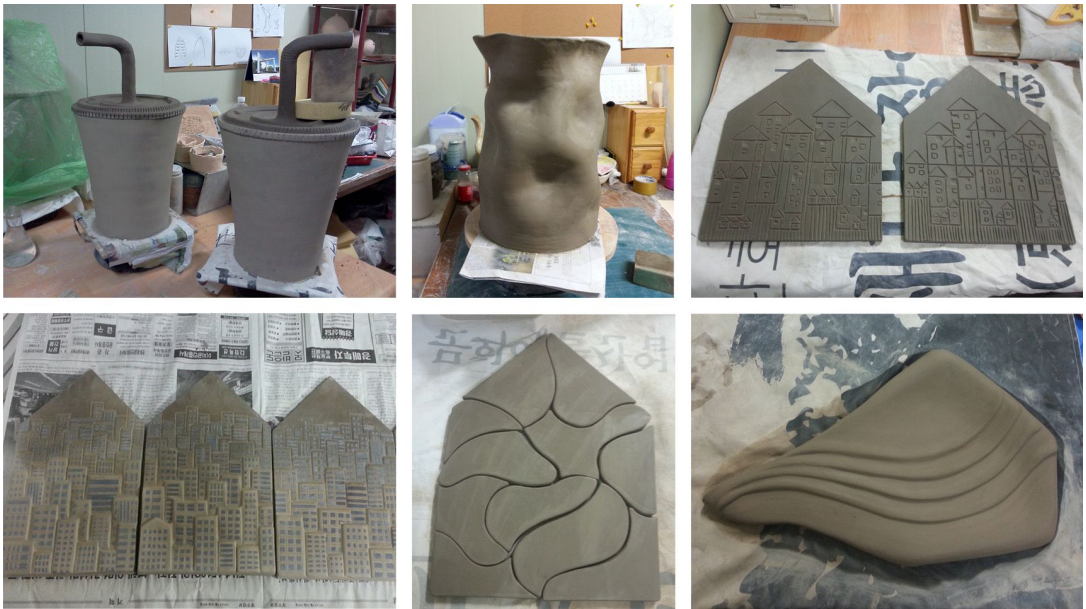
명유로 시유할 것이다. 다양한 집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작품의 크기는 한정하지 않고 판 성형과 코일링 기법으로 작품을 제작하고자 한다.

제2절 작품제작과정

1. 점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점토는 작품을 조형화하는 작업과정 중 흙의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해 조형토를 사용하였고 작품표면에 표현될 집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표현하고자 조형토의 거친 질감을 감소하기 위해 백자토를 조합하였다. 점토조합비로는 조형토 80%, 백자토 20% 비율로 조합하였다. 판으로 성형한 작품의 경우 집의 이미지를 상감기법으로 표현함으로써 거친 질감을 해소하였으며 백자토의 특유의 부드러운 질감과 높은 밀도로 세밀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백자토 점토만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2. 성형과정



<그림 28> 작품 기초성형 과정

작품의 기초성형은 단순화 된 집의 이미지와 혼잡한 도시 이미지를 조형 표면에 표현하기 위해 <그림 28>과 같이 도판과 오브제 형태를 차용하여 판성형과 코일링기법을 병행하여 성형하였다. 유기적인 곡선과 굴곡이 어울려진 원통과 오브제 형태인 테이크아웃 컵, 우유팩, 캔, 유리병은 코일링 기법으로 형태를 제작하였으며 집 형태의 도판들과 천으로 흙의 물성을 이용하여 볼륨감을 준 도판은 판 성형을 하였다. 오브제 조형 형태는 실제 사물을 관찰하면서 양각과 음각기법을 병행하여 실제 사물과 흡사한 형태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림 29> 판 성형 상감기법 과정

단순한 집 형태인 도판에는 작업의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 양각과 음각을 통하여 도시 이미지가 도출된 도시풍경을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그림 29>와 같이 연구자의 내적 심상을 통해 도출된 회화적인 집의 이미지는 도판 바탕에 집의 이미지들을 새기고, 그 자리에 흙상감을 메워 넣은 다음 일정 시간이 지나 마른 후 굽어내는 상감기법을 활용하였다.



<그림 30> 세라믹 펜 및 흙상감 집의 이미지 표현과정

코일링 성형 후 일러스트적인 집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백상감을 기물의 외부 벽면에 잘 부착되고 뜨거나 갈라짐이 없도록 고르게 발라 표면 처리하였다. 1차 소성인 초벌 후 백색의 도화지처럼 처리된 조형물에 세라믹 펜을 이용하여 집의 이미지를 세밀하게 그려 넣어주었다. 도판 작업의 경우 흠상감을 이용하여 상감기법과 붓으로 집의 이미지를 그려 넣어줌으로서 회화적인 집의 이미지를 나타내하고자 하였다.

3. 시유 및 소성

시유는 조형 표면에 나타낸 집 이미지의 발색을 위해 투명 유약을 분무 시유하였다. 소성은 초벌은 780℃, 재벌은 1245℃로 하였으며 소성방법은 백상감, 흠상감과 세라믹 펜의 발색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전기가마에서 산화 소성 하였다. 판으로 작업한 작품의 경우 유약의 투명한 광택을 내지 않기 위해 무광택의 흠의 질감을 그대로 표현하고자 1245℃에서 단벌로 소성하였다.

4. 소성 후 작업



<그림 31> 소성 후 장식과정

본 연구자의 내면적 집의 상징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2차 소성 재벌 후 타 재료인 핫픽스를 도판 작품에 장식해줌으로서 핫픽스 특유의 광채로 입체감을 더해주었다. 부조로 제작한 세라믹의 작은 집에 세라믹 펜으로 그린 집의 이미지들과는 다른 이질적인 느낌을 주도록 은색 락카를 뿌려 개인만의 특정한 장소를 상징하는 집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소성 후 장식기법을 통해서 점토의 재료적 제한성을 벗어나 조형물의 형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절 작품설명



<작품 1> Home Story 1, 25×38×26(cm)

- Title : Home Story 1
- Material : 조형토, 백상감, 세라믹 펜, 투명유, 은색 락카, 투명유
- Process : 코일링 기법
- Design Keyword

곡선과 굴곡



수없이 쌓아 올라가는 높은 고층 아파트, 건물들 사이에 나타나는 겹겹이 뭉쳐있는 집의 이미지를 나타내어 우리사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변질되어진 현시대의 집의 의미를 상기시키고 본래의 집에서 느낄 수 있는 편안한 휴식의 장소로 집의 의미를 작품에 담았다.

유기적인 곡선과 굴곡 안에 그려진 집과 도시의 이미지들이 혼용되어 나타난다. 집과 도시의 이미지들은 각 개인을 상징하며 집과 도시의 혼용은 어떠한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나타내며 시공간의 중첩을 의미한다. 작품의 형태에 나타나는 유기적인 곡선과 굴곡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나타내고 있으며 굴곡 안에 군데군데 공간을 비워둠으로서 치열한 경쟁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헛터를 표현하였다. 비워져 있는 공간과 달리 은색의 작은 부조로 부착된 집은 세라믹 펜으로 그려진 집과 도시 이미지들과는 다른 이질적인 느낌을 준다. 은색 락카로 뿌려진 이 작은 집은 각 개인의 특정한 장소를 상징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매개체로 작품에 쓰였다.

작품제작에 있어 유기적인 곡선과 굴곡을 살리기 위해 물레로 성형을 시도하였으나 제작과정 중에 파손되어 실행착오를 겪었다. 하지만 다시 코일링 기법으로 작품을 성형하여 건조가 되기 전에 원통 안과 밖에서 손에 힘을 가하여 유기적인 곡선과 굴곡을 나타내어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집과 도시를 표현하였다.



<작품 2> Home Story 2, 8× 38(cm), 25×32(cm)

- Title : Home Story 2
- Material : 백자토, 흙상감, 핫픽스
- Process : 판성형, 상감기법
- Design Keyword

<그림32> 훈데르트바서, 세 번째 피부, 1982 53)



훈데르트 바서의 작품에 영감을 받아 인간의 정서를 집의 이미지로 추상적으로 표현하였다. 작품에서 나타나는 집의 의미는 인간의 내적 자아, 즉 자신의 이야기이다. 위의 도판은 추상적으로 인간의 내적자아를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곡선과 직선 사이에 그려진 집의 이미지들을 연구자의 주관적인 심상을 바탕으로 흥미롭게 표현하였다.

가운데 작품을 보면 눈물방울 안에 집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다. 눈물방울 안에 있는 집은 기쁨, 슬픔 등 감정을 동반하며 집 안에 담겨진 각 개인의 사연이 내포되어 있듯이 작품에 나타나는 집의 의미도 보는 이에게 다르게 다가가길 바라며 눈물방울 이미지를 차용하였다. 끝도 없이 세워져 있는 집이 반복적으로 중첩되어 있는 창문이 많은 집의 이미지는 사회 속에 더불어 살고 있는 인간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의 각각의 열려진 창문은 서로 마음을 소통하고자 하는 연관된 의미를 내포하였다.

판으로 도판을 성형 한 뒤 회화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상감기법을 이용하여 흙상감을 굽어냄으로서 판화적인 느낌을 주었다. 더불어 타 재료인 핫픽스를 사용하여 입체적인 표현법과 집의 이미지를 반짝거리게 함으로서 내적심상의 집의 추상적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였다.

53)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rchmys&logNo=30099878492>



<작품 3> Home Story 3, 20×25(cm)

- Title : Home Story 3
- Material : 백자토, 흙상감
- Process : 판성형, 양각, 음각, 상감기법
- Design Keyword

도시풍경



멀리서 바라보는 도시의 풍경은 고요하기만 하다. 그러나 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각 개인마다 사연이 있고 무수한 이야기들로 넘쳐나는 곳이다. 사람이 모이고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도시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저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한 도시 속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으로 표현되어진 이 작품은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제작하였다. 도시 풍경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건물들과 창문들은 황량하고 삭막한 도시 속의 집처럼 보이기도 한다. 아무런 미동도 없이 조용한 도시처럼 보이지만 무수히 많은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이야기가 많이 내포되어있음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현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을 도시의 이미지로 각 개인의 자아, 위치, 공간으로 상징하며 현대사회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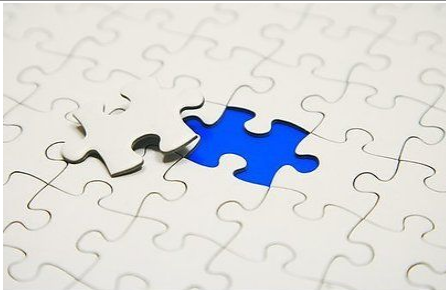
조용한 도시 풍경을 나타내기 위해 최대한 심플하게 작품을 제작하고자 판 성형을 통해 집형태의 도판들을 만든 뒤 도시의 이미지에 입체감을 주기 위해 도판에 흙을 덧붙여 양각을 해주었으며 흙상감을 통해 도시의 창문들을 표현하였다.



<작품 4> Home Story 4, 27.5×37(cm)

- Title : Home Story 4
- Material : 백자토, 흙상감
- Process : 판성형
- Design Keyword

퍼즐



유년시절 할머니 집에서 성장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구자의 내적에 표상된 집의 이미지는 할머니 집의 마을 풍경이 크게 각인되어 있다. 각 사람들마다 자신이 추억하는 장소는 다르며 이러한 집은 시간적 상징성으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공간을 상징한다.

본 연구자는 퍼즐 조각 위에 집의 이미지를 나타내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시공간적인 집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퍼즐 조각 위에 나타난 집들은 본 연구자의 유년시절 속 할머니 집 마을의 풍경이며 과거의 공간을 상징한다.

도판의 조각들이 하나 둘씩 흩어져 나가는 모습은 무의식적으로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과거의 집들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기억의 매개체를 하는 도판의 조각들을 하나둘씩 다시 결합하여 집 형태가 형성됨으로서 기억을 집합하는 소재로 작품에 표현하였다.

작품제작은 판 성형을 통해 집 형태의 도판 위에 면을 분할하여 퍼즐조각 처럼한 조각씩 나누었다. 기억 속에 머무르고 있는 집들의 이미지를 회화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흙상감을 이용하여 붓으로 다듬지 않은 거친 느낌을 줌으로서 연구자의 유년시절 속 할머니 집에 대한 내적심상을 표현하였다.



<작품 5> Home Story 5, 40×21(cm)

- Title : Home Story 5
- Material : 백자토, 흙상감
- Process : 판 성형, 코일링, 양각, 상감기법
- Design Keyword

시골마을 풍경



집은 기억을 통해 다양한 내적심상의 이미지들로 형성된다. 작품은 「Home Story 4」와 같이 연구자의 유년시절 속 할머니 집의 마을풍경을 상징한다. 유년시절 기억 속 추억의 장소인 할머니 집과 어울려 있던 이웃집, 아랫집, 마을입구 쪽에 웅기종기 모여 있던 집의 이미지를 고스란히 작품에 표현하였다.

유년시절 추억 속에 남아있는 기억들을 끄집어내어 집의 이미지에 그때 당시의 재미난 추억 속 이야기를 담고자 하였으며 유년시절 할머니 집에서 성장했던 연구자의 심연 속에 담긴 편안하고 휴식처와 같은 마을의 풍경들을 지향하는 현재의 심리적인 심상을 작품에 투영하고자 하였다.

작품제작은 판 성형으로 이루어졌으며 평면인 도판에 입체감을 살려주고자 도판에 천을 대고 밑 부분을 볼륨감 있게 처리하였다. 코일링 기법으로 도판 위에 유기적인 곡선을 양각으로 표현하여 작품에 리듬감과 입체감을 더해 주었다. 유기적인 곡선의 굴곡 사이에 그려진 집의 이미지들은 흙상감을 이용하여 붓으로 그린 뒤 거친 흔적들을 긁어내어 집의 이미지를 깔끔하게 돋보이도록 하였다.



<작품 6> Home Story 6, 22×51×28(cm), 24×54×30(cm)

- Title : Home Story 6
- Material : 조형토+백자토, 백상감, 흙상감, 세라믹 펜, 투명유
- Process : 코일링기법, 음각, 양각
- Design Keyword

테이크아웃 컵



테이크아웃 컵을 관찰하여 코일링 기법으로 형태를 만들었다. 테이크아웃 컵이라는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빨대가 꽂혀있는 형태를 차용하였으며 컵의 윗부분은 음각, 양각기법을 이용하여 성형하였다. 성형완성 후 기물 표면에 백상감을 바르고 초벌 소성 후에 세라믹 펜을 이용하여 집의 이미지들을 그려 넣어줌으로서 현대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고자 하였다.

테이크아웃 컵 형태를 차용하여 작품에 도입함으로서 현대사회를 상징하고자 하였다. 작품형태에 조금의 여백 없이 그려진 집과 건물 이미지로 바쁜 일상과 치열한 경쟁사회인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테이크아웃 컵에 그려진 집의 이미지는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대변하기도 하며 물리적인 집의 기능을 벗어난 의미를 담고 있다.

인간은 삶을 살아가면서 집을 통해 성장하고 활동하며 집의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가족의 사랑과 따뜻한 정서와 인간미를 배워 나가고 미래의 행복을 꿈꾼다. 연구자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형태에 그려진 집들을 통해서 작품을 보는 감상자들에게 물리적인 집의 기능을 벗어난 함께 추억에 잠길 수 있는 심리적 교류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작품을 통해서 하루하루 빠르게 변화해 가는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물질적이고 소비적인 문화만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집의 이미지를 통해서 되짚어주고자 하였다.



<작품 7> Home Story 7, 6×17×9(cm), 16×27×16(cm)

- Title : Home Story 7
- Material : 조형토, 백상감, 세라믹 펜, 투명유
- Process : 코일링 기법, 판 성형, 음각, 양각
- Design Keyword



「Home Story 6」와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오브제인 우유팩과 캔을 작품에 형태로 차용하였다. 우유팩과 캔 안에 그려진 집의 이미지는 부동산 투자의 상품화로 전락되어진 물질적인 현시대의 집을 상징하고 있다. 「Home Story 6」와 같은 의도로 우유팩과 캔 역시 현대사회의 생활 속 상품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오브제이며 작품에서 상표를 그대로 그려 넣어 줌으로서 실제 오브제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여러 개의 캔은 일상의 반복적 삶을 살고 있는 다양한 인간상을 나타낸 것으로 평범한 삶에 느끼지 못하는 수많은 관계를 오브제를 차용하여 집의 이미지로 한 사람의 개인을 지칭하며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사건, 기억, 추억 등의 다양성을 표현하였다.

코일링 기법과 판 성형으로 우유팩과 캔의 형태를 표현하였으며 기물 표면에 백상감을 바르고 초벌 소성 후에 세라믹 펜을 이용하여 집의 이미지들을 그려 넣어 주었다. 작품에 오브제를 차용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자유로운 발상을 통해 집의 이미지를 보다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작품 8> Home Story 8, 10×19×13(cm)

- Title : Home Story 8
- Material : 조형토, 백상감, 세라믹 펜, 투명유
- Process : 코일링기법, 음각, 양각
- Design Keyword

소스 병



「Home Story 8」도 「Home Story 6.7」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 찾을 수 있는 소스 병의 오브제를 형태를 차용하여 표면에 집과 도시의 이미지를 그려 넣어주었다. 소스 병 형태를 차용함으로써 각 개인마다 다른 기억 속 추억의 장소를 잊지 않기 위한 공간을 담아두는 매개체로 연구자의 주관적인 의미를 사물에 부여하였다.

스파게티 소스 유리병을 관찰하여 실제 사물의 크기와 같은 크기로 제작하였으며 각이 진 유리병 형태를 둥글게 성형하였다. 상품명을 그대로 작품에 반영하여 현대사회의 배경을 바탕으로 집과 도시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공간을 담아두는 유리병은 집이라는 공간 안에 내재된 단편적 기억들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의 삶의 소중한 가치를 환기 시키고자 하였다.

코일링 기법으로 유리병 형태를 표현하였으며 「Home Story 6.7」과 동일한 작품과정을 통해 기물 표면에 백상감을 고르게 바르고 초벌 소성 후 세라믹 펜을 이용하여 집과 도시의 이미지를 라벨 안에 그려 넣어주었다. 일상사물의 오브제 형태를 작품에 차용함으로써 집의 의미와 상징성을 보다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 사물에 대한 관찰력과 자유로운 발상력을 얻을 수 있었다.

제3장 결론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집은 오늘날 부동산 재산의 하나로 투자의 수단이거나 상품으로 Home의 개념이 아닌 House의 개념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따라 본 연구자는 집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으며 집이 지닌 의미를 인격적, 공간적, 시간적 상징성으로 끌어내었다. 또한 연구자의 주관적 시각으로 유년시절의 기억 속 집, 상상 속 미래의 집, 현대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집의 이미지를 도자조형작품으로 표현하였다.

본 연구의 본론 제 1장에서는 집의 의미를 통해 집을 단순히 물리적 구조물인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주체로 바라보았다. 이를 통해 집안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상징성을 인격적, 공간적, 시간적 상징성으로 이끌어내었으며, 이를 작품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현대도자조형이 어떻게 전개해나갔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배경으로 현대도예에 나타난 탈 기능 오브제 도입, 회화적 표현, 혼합매체 활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집의 이미지를 응용한 작가별, 분야별 작품분석을 통해 작가들이 작품에 나타낸 집이 내포하고 있는 상징성과 의미를 알 수 있었고, 작가들의 다양한 표현기법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집의 이미지를 응용한 여러 장르 작가들의 작품연구를 통해 연구자만의 새로운 도자조형 이미지를 도출하고자 작품제작에 오브제 형태의 차용과 타 재료인 핫픽스 사용하였으며, 세라믹 펜으로 회화적인 집의 이미지를 표현하여 도자조형물로서 흥미로운 집의 이미지를 나타낸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누구에게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친숙한 집의 이미지는 작가들에게 있어서 풍부한 감성적 표현 소재를 제공해주며, 작가의 주관적인 관점에 의하여 같은 대상의 집이라 할지라도 다르게 해석되어집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집의 이미지가 전달하는 영감을 일상 속 사물인 오브제를 차용하여 집의 이미지를 일러스트의 그림의 양식처럼 표현함으로써 집의 이미지가 다양한 형태로 새롭게 조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다.

셋째, 집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하여 생각하고 작품을 표현함으로써 소재가 지닌 본래의 의미와 상징성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작품연구 중 오브제를 도자 조형으로 형상화 시키는 과정에서 제작상의 어려움과 완성도의 부족함이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앞으로의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통해 많은 실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집이 지닌 의미와 상징성을 통해 집의 소중한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작품형식에 다양한 시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의 삶을 반영한 오브제를 차용한 집의 이미지를 새로운 표현방식을 구축하였다. 더불어 대중과 쉽게 공감 할 수 있는 친근하고 다양한 이미지의 표현으로서 집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재인식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의 앞으로의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통해 연구자만의 새롭고 창의적인 표현방식을 구축하여 작품을 향상시켜 나가길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가드 클락 저, 신광석 역, 『도자예술의 새로운 시각』, 미진사, 1989
김인철, 『건축가는 어떤 집에서 살까』, 서울포럼, 2005
데이비트 폰테너, 원재길 역, 『꿈의 비밀』, 열화당, 1998
모인순, 『점토혁명』, 보문당, 1995
쉬레이 저, 정세경 역, 『집, 예술이 머물다』, 시그마북스, 2011
신상호, 『현대도예-미래를 향한 움직임』, 홍익대학교 도예연구소, 1993
홍영옥 외 지음, 『생활 속의 공간예술』, 교문사, 2005

<논문>

- 김동준, 「Mixed Media를 주제로 한 도자조형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석사논문, 2009
김진아, 「한국 현대도예 전시의 특성과 유형분석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04
김창수, 「한국 근대시에 나타난 집 이미지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1
남미경, 「도자오브제의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2001
박수진, 「집의 상징을 소재로 한 도자조형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2009
박은아, 이연정, 「집의 의미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학술논문, 2011
변주성, 「현대미술에서 현대도자의 이해와 교육적 가치 제고」,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학술논문, 2006
송호성, 「회화적 표현을 통한 도자조형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2000
장인숙, 「집의 심리적 의미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2
정연택, 「피터 볼커스(Peter Voulkos)」, 종합디자인, 학술논문, 1997
정유화, 「집에 대한 공간체험과 기호론적 의미: 백석론」, 중앙어문학회, 학술논문, 2001
조혜영, 「집의 개념을 통한 잠재의식에 대한 도자표현 연구」, 경희대학교교육대학 석

사논문, 2005

현미란, 「오브제를 접목한 도자조형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2010

<비문헌자료>

네오룩 <http://www.neolook.net>

뮤움 <http://www.mu-um.com/>

아트허브 <http://www.arthub.co.kr>

위키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wiki/%EC%A7%91>

<http://www.craftcouncil.org/timeline/60sinfo.html>

<http://www.liveauctioneers.com/item/7286425>

<http://artsearch.nga.gov.au/Detail.cfm?IRN=116228>

<http://www.marilynlevine.com/artworkframeset.html>

<http://cebiko2009.tistory.com/12>

<http://asuartmuseum.asu.edu/collections/ceramics/images.php>

<http://www.masterworksfineart.com/inventory/3546>

<http://www.liveauctioneers.com/item/7186280>

<http://www.tfaoi.com/aa/7aa/7aa105.htm>

<http://asuartmuseum.asu.edu/collections/ceramics/images.php>

<http://blog.daum.net/hyeanj/7969065>

http://www.bongkim.com/bongkim/skin/board/b_webzine

<http://foundmag.co.kr/22873>

<https://khba.or.kr/juteck6/read>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rchmys&logNo=30099878492>